朝鮮日報

二十七日夕刊

發行所 朝鮮日報社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時評

釜山私刑事件(一)

× 釜山에서 또 私刑事件이 생겻다 한번 釜山에 발을드려노아본 者는 누구나 다 늣기는바와가티 釜山이 日本의 釜山인지 朝鮮의 釜山인지 判斷하기 어려울만큼 日本人이 채잡고 사는 都市이다 이곳에서 朝鮮人 六歲女兒가 외 한개 따가젓다는 理由로 말못되는 私刑을 當하야 十日間治療를 要하는 傷害까지 바덧다 十日間治療라면 輕傷이라고 생각하겟지마는 어리고 弱한 六歲女兒를 우물기둥에 첫처매고 半日이 넘도록 써렷슬뿐아니라 따림도 不足하여서 『글랑』으로 그 얼굴全部를 덥허발러두엇다 이러한 私刑을 行하기 거의 一日 午後에 가서 哀乞하는 父母에 依하야 이 可憐한 六歲女兒는 구원되엇다 慘酷! 天人이 共怒할 殘酷!

× 釜山에서 생긴 이 六歲女兒의 私刑事件은 『飯場요시에』와 藤田富市等 男女의 協力에 依하야 進行되엇다 硝酸液으로 『盜賊』二字를 쓴 것을 미워할 惡戲다 고하면 이것은 確實히 傳統的 倭虜性 및 殘酷性의 發現이라고 볼것이다 小兒의 외 도적이 얼마큼이나 彼等의 不快를 도든만 하엿든지는 알기 어려우나 酷甚한 橫暴의 짓이 暴蠻人의 눈압헤 가지 宣布된 一件이라 하겟다

釜山私刑事件(二)

× 一小兒를 私刑한 事件에 依하야 걷든하면 民族的 感情을 一層더 險惡케 하기는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반듯이 民族的 感情까지 가지 안터라도 人道上으로 보아서 누구든지 容貸할수업는 問題이다 이로 因하야 社會의 輿論이 沸騰되는 것은 當然한 일 釜山의 西部靑年會가 우선 際對의 第一際을 일르게 되엇다 그러나 이는 民間에서 다만 義憤의 소리를 놉히기만 할바 아니오 警察 및 司法當局이 率先하야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할 일이다 向者 許時模氏 거질러노흔 私刑事件에 因하야 謝罪 賠償 및 其他의 相當한 引責의 方法을 다할것을 承認하엿고 지금도 司直의 손에 걸려서 定罪의 判決을 기다리는 中이다 彼等 飯場요시에 藤田富市等에 限하야 曲庇할 理由는 업다

× 前記 許氏의 私刑事件에 依하야 朝鮮人社會에 物議의 大沸騰이 잇섯슬뿐아니라 京城의 日本人 그中에도 外事에 關係되는 重要官僚로부터 宗敎運動의 指導者 및 政界의 浪人과 그의 言論界까지도 자못 前例에 업는 義憤을 發露하기에 努力함을 보고 吾人은 적이 異樣의 感이 잇섯다 알지못거라 彼等 今番의 私刑事件에 對하야 얼마즘의 純直한 表白이 잇슬는지 日本人 正義感의 試金石이 될 줄로 밋는다 아모커나 下回를 보자

罷業益益惡化 敵對行動露骨化 又復職工副監督殺害

(上海二十六日發) 同興紡績、善良職工長兄弟가 罷業職工에게 射殺된 것은 旣報한바이나 二十六日에 又復英人『와덴마케소』經營의 第一工場職工副監督黃夫婦는 自宅에서 五人의 兇漢에게 毆擊을 바더 全身十五個所傷處를 밧고 即死한 事件이 잇다 即 黃은 過般 同工場罷業을 開始할 時 不良職工二千七百名의 補充人을 斡旋한 者는 加害者는 遂出된 職工으로 補充、職工에 對한 罷業者의 迫害가 畢竟 深刻하야 形勢 益益惡化의 兆가 잇더라

◇近近總罷業說 (上海二十六日發) 內外綿第九工場은 二十六日夜業부터 罷業에 參加하고 第三第四工場만 就業하고 잇는바 此亦是 明日부터 罷業할듯하다 또한 同興紡績도 二十八日부터 罷業할 豫定이라 하며 此月中에는 東部方面도 全部 罷業을 하야 九月一日부터는 上海의 總罷業에 入하리라는 風說이 盛하더라

馮玉祥氏 國民黨에 入黨 國民政府指揮下에 活動

(北京二十六日發) 馮玉祥은 國民軍을 引率하고 正式으로 國民黨에 入黨하엿다 따라서 國民軍은 國民政府指揮下에서 革命에 奔走하기로 되엇다 馮氏는 國民政府委員 其他에 任命될 터이더라

(備考) 同日 北京發電의 馮玉祥急死說云云은 誤報인듯

閻錫山軍 平地泉을 占領 奉軍에 進軍中止希望

閻錫山은 奉天軍側에서 二十六日 平地泉을 占領하엿슴으로 奉軍은 同地에 進軍함을 中止하여 달나고 報하엿다 右는 山西軍의 努力範圍를 設定하려는 것이라고 觀察되더라

孫軍出動準備 灤州陷落說에 衝動되야

(上海二十六日發) 南京으로부터 온 消息에 依하면 灤州陷落과 武昌漢口의 形勢가 急하다는 報道는 南京에도 多大한 衝動을 與하엿다 傳聞에 依하면 孫傳芳氏는 更히 謝鴻彦、白寶山의 兩師團으로부터 各一旅、混成旅으로부터 一旅를 湖北方面에 出動하기로 決하고 出動을 準備中이라더라

湖南航行船은 檢閱받다 通告

(漢口二十一日發) 吳佩孚氏의 命令에 依하야 總司令李濟臣氏는 今後 湖南航行汽船은 岳州에서 檢閱할 旨를 各國領事에게 通告하엿더라

馬賊討伐隊 出動을 要求

(奉天電) 省長公署入電에 依하면 安東縣에서는 公公署의 率한 馬賊百六十名이 出現하야 掠奪을 하는 中인바 同縣內의 警甲만으로는 討伐이 困難한 外닭에 討伐隊의 出動을 要求하엿더라

極東移民 實施第一步 爲先北樺太에

(東京電) 勞農政府는 露領北樺太에 在한 移民事業調査費로서 今年度二十九萬留를 支出하엿다 右計劃에 依하면 歐露地方으로부터 約三千名의 農業殖民이 今年中에 北樺太에 向하야 派送할러이다 右는 昨年九月一日의 極東經濟會議에서 決定한 十年計劃對極東施設案에 基하야 北樺太殖民計劃의 實行에 着手하는 것이다 依하야 同地方과 密接한 關係가 잇는 日本으로서는 該種의 點에 依하야 影響이 잇슬것으로 政府當局은 目下 右計劃의 進行에 對하야 深甚한 注意를 하는 中이더라

勞農: 蒙古無電撤廢

勞農은 蒙古政府와 特約하고 張家口 庫倫間에 假設한 張家口通信局의 補助機關이던 勞農無線電信은 張家口의 中國無電完成과 共히 此를 撤回하얏다고 表面으로는 稱하고 잇스나 南口陷落에 依하야 奉天軍의 追擊은 益益急한 外닭에 後日의 交涉을 見하고 急遽히 撤回한듯하더라

蒙古問題를 ◇……一擧에 解決 奉天軍一部의 主張

(北京二十五日發) 蒙古問題에 對하야 奉天側의 一部에서는 現在의 狀況에 鑑하야 一氣에 解決할 得策이라 하야 張家口 庫倫間의 鐵道를 速成하고 奉天軍은 勝勢를 乘하야 蒙古에 進할 것이라고 主張하고 잇다 然하야 右鐵道敷設材料는 國內各鐵道에 分擔식히려고 한다더라

英國炭坑罷業解決交涉 二十六日中再開

(倫敦二十六日發) 炭坑夫聯合會幹事『쿡』氏는 勞働大臣『스틸』氏에 對하야 會見을 申込한지라『메토란드』『스틸』氏는 避暑地로부터 倫敦에 歸還中인데 炭坑夫側과 政府當局의 罷業問題解決交涉은 畢竟 二十六日午後再會의 運에 至하엿더라

瑞典皇后病氣 依然御重態

(스톡홀름二十六日發) 瑞典皇后陛下는 依然重態이나 危篤까지에는 이르지 안헛는데 侍醫는 心臟病이 併發할가바 細心으로 注意를 하도록 말을 올녓더라

탄젤領有問題 佛國은 西國에 妥協的

(巴里二十五日發) 西班牙가『탄젤』에 關하야 한 要求에 對하야 佛蘭西는 關係者의 妥協的 見解를 갓게되엿다 即 佛蘭西는『탄젤』의 重要地點을 西班牙에 移讓하야 西班牙保護領과의 境界線變更을 求할 터이더라

內國債發行과 米公使의 阻止努力 三國公使에 同一行動慫慂

(北京二十六日發) 關稅剩餘金을 擔保로 한 中國內國債發行에 抗議한 米國公使『맥크마레』氏는 日英佛三國公使에 對하야 米國과 同樣의 態度를 取하자는 旨를 提出하엿더라

奉派希望의 改造內閣閣員

(北京二十六日發) 吳佩孚의 委任主義와 張宗昌一派의 極端說의 中間을 取하고 在京奉天派는 內閣의 局部改造를 左와 如하다고

內務總長 潘復
交通總長 顧維鈞
外交總長 顏惠慶
財政總長 王克敏

又一說에는 外交에 顧維鈞氏說도 잇더라

花柳病者에 懲役六個月 勞農刑法에 追加

(莫斯科二十六日發) 勞農國政府는 今回 花柳病患者로서 他人에게 此를 傳染케 할 危險이 잇는 者에 對하야는 六個月內의 懲役又는 强制的 勞働을 課하는 條項을 刑法에 追加하기로 決하얏더라

軍團은…… 首相退職을 歎願 首相은 軍團解散要求 西班牙의 重大事件

(산세바스찬二十六日發) 當地에 達한 報道에 依하면 西班牙에서는 今回 重大事件이 勃發하엿다 右는 即 同國砲兵軍團이 國帝『알폰소』陛下에 對하야 首相『푸리모데리베라』氏의 退職을 歎願하게 되엇지만 首相『프리모데리베라』氏는 此에 對하야 砲兵軍團의 解散을 命할것을 要求하엿스나 皇帝는 此命에 署名할 것을 拒絶하엿다더라

希臘新內閣成立

(雅典廿六日發)『콘데-리』將軍을 總理로 한 希臘新內閣은 廿六日成立하엿더라

佛國政府에서 學生軍事敎育案 起草

(나우엔二十五日放送) 佛蘭西政府는 兵役年限을 短縮식히기 爲하야 一般學生에게 軍事敎練을 實施하자는 法案을 起草中이라더라

首相虛僞報告 重大物議沸騰

(東京電) 朴烈의 所謂 怪寫眞은 各方面에 附送하엿는데 第一번저 受取한 一人인 山本權兵衛伯은 此重大問題를 알고 잇는가 事態가 重大하다고 自身이 宮內省에 出頭하야『皇室의 尊嚴에 關한 此重大問題를 알고 잇는가 朴과 如한 者에게 對하야 獄中에서 如斯한 痴態를 하게 한 後 特赦減刑을 奏請한 것은 무슨 일이냐』라고 例의 酷毒한 눈살을 번득이며 此에 大驚한 者는 一木宮相이다 如斯하야 一木宮相은 若槻首相에게 照會하매 首相으로부터 宮相에게 返答이 잇서 가로되『事實은 全無根입니다』然한데 此回答이 잇슨지 三日을 지나 江木法相으로부터 首相에게 ……日이 못되여 怪寫眞事件이 世間에 널리 퍼첫나 事態가 이가티되매 寫眞을 撮影하엿다 아니하엿다는 것도 다 宮內省에 對하야 全然虛僞의 報告를 한 것과 一方 그가티 傍若無人의 態度를 取하게 한 後 特赦減刑을 奏請한 實任을 如何히 할가의 大物議를 釀하엿더라

來議會는 純野黨으로 邁進 本黨元田氏力說

(東京電) 床次本黨總裁는 乘者 大阪地方裁判所의 召喚을 受하고 下阪에 際하야 元田顧問과 會見하고 今後本黨의 態度에 對하야 協議하엿는바 二十四日도 兩者는 長時間에 亘하야 會見하고 元田氏는 頻히 本黨은 來議會에 純野黨으로서 邁進할 것을 力說함에 對하야 床次氏는 本黨新黨率者로서 議會解散을 誘致함과 如한 態度를 取할 수도 업고 本黨은 行할 길이 自然히 開함을 기달여 暫時形勢의 推移를 待하랴고 態度를 表明치 안코 元田氏의 意見에 對하야도 贊意를 表치 안코 考慮를 約함에 不過하얏더라

本年부터 實施航空法 施行細則制定中

航空法은 大正十年四月法律第五十四號로 公布된 것으로 本年度內에 施行하게 되야 目下 施行規則의 制定을 急遽히 하는 中인데 本法은 航空機만은 總則의 規定과 檢疫及救難에 關한 規定外는 適用치 아니하기로 되얏고 航空機는 檢査를 受치 아니하면 不可한바 檢査에 合格한 航空機에는 堪航證明書가 交付하며 檢査에 合格한 航空機가 아니면 登錄의 申請을 할 수 업고 登錄한 航空機에는 國籍記號(丁字)登錄記號 所有者等을 表示하기로 되얏고

航空機의 乘員은 技能證明과 航空免狀을 가진 者를 要하고 飛行場設置하라고 하는 者는 許可를 受하고 航空標識其他航空에 必要한 設備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다

航空及運送에 關한 規定의 要點은

一、航空船及飛行機는 飛行場에서 離着陸함을 原則으로 함
二、皇居、禁苑、離宮、行在所又는 神宮의 上空에서 또 皇陵의 上空千米以下 其他航空을 禁止한곳을 航空함을 不得함
三、航空機에 依한 運送業은 許可를 受치 아니함을 不得함
四、外國의 航空機는 許可를 受치 아니하면 航空의 用에 供함을 不得함
五、國際航空에 際하야는 指定된 航空路에 依하야 指定된 飛行場에 發着치 아니하면 不可함
六、外國航空機도 日本各地間의 運送은 하지 못함을 原則으로 한다

稅整方針決定은 草間局長渡東前

總督府明年度豫算은 本月末 後藤林財務局長의 歸任을 俟하야 山林部의 豫算提出로써 全部 提出될지라 遲하야도 九月上旬中에는 此等의 査定을 終了하고 草間財務局長은 同中旬頃 携帶渡東할 터이며 從하야 中旬外지에 開會할 豫定인

稅制整理 本委員會도 그때가지에는 開會 大體方針을 確定할 터인바 特히 關稅關係及中央主稅局等의 關係가 容易히 協定될는지가 疑問임으로 此等關係로 因하야 委員會가 數回를 거듭함에 至할지나 그리자면 多少遲延은 未免일지며 更히 日本側과의 協調가 困難하야 或은

委員會를 日本으로 移하게 될는지 未知인바 如何間 九月二十日頃外지에는 渡東할 必要가 잇는바 結局 그때外지에는 豫算의 査定 稅整의 方針도 決定하게 되리라云云

朝鮮의…… 金組勢力膨脹과 乙種銀行의 一大脅威

預金利子引下問題에 關聯하야 日本에서는 銀行對信託會社、朝鮮에서는 金融組合對乙種銀行間의 利率의 差가 問題가 되야 現下 釜山에서는 八月二十日부터 金組、乙銀의 協定이 成立하는 等 右兩者의 關係는 最近 顯著히 一般의 注意를 喚起함에 至하얏는데

金融組合 對乙種銀行의 關係는 日本의 信託會社 對一般銀行의 關係보다 一段의 注意를 要하는 것이 잇스니 即 日本의 信託會社의 信託財產總額은 約七億圓으로 其中 所謂 信託預金이라는 것은 約四億圓의 巨額을 示하야 東京組合銀行의 預金十六億圓、貸出十七億圓中 信託預金에 對抗할 定期預金 七億七千餘萬圓에 比하면 約半額에 相當하야 銀行의 脅威가 되는 것은 事實인데 右銀行의 定期預金은 東京組合銀行만의 數字로서 此를 全國的으로 보면 信託預金의 勢力은 案外微弱하다 볼 수가 잇다 然而 朝鮮의 金融組合 對乙種銀行의 關係는 如上의 信託對銀行의 比가 아니오 金融組合이 乙種銀行의 一大脅威 가되는 것을 示하는 中이니 即 本年五月末現在 總督府理財課調査(六、七月末統計는 아즉 未知)에 依하면 全朝鮮金融組合의 預金及貸付金은 左와 如하더라(單位千圓)

▲預金

村落	三四、五一六
都市	一四、〇四一
計	四八、五五八

▲貸付金

村落	五四、三五七
都市	一四、八三四
計	六九、一九二

即 金融組合의 預金貸出은 殖銀 鮮銀 日本支店銀行을 除하고 朝鮮에 本店을 둔 銀行(乙種銀行)의 預金總額(五月末現在)五千三百十九萬八千餘圓、貸出總額六千百三十五萬八千餘圓에 比하면 預金에서는 四百三萬六千餘圓이 多하야 此의 趨勢가 乙種銀行의 存立을 脅威함이 잇는 것은 乙種銀行의 經營難에 徵하여도 明瞭한 事實로서 早晩 乙種銀行은

全部合同 하야 一大商業銀行이 되지 아니하면 아니될 運命에 잇서서 總督府及鮮銀當局도 此方針下에 進行하는 中인데 更히 總督府에서는 本年부터 今後六個年內에 每年二十六組合의 比例로 百六十의 金融組合設置方針을 確定하리라 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바 自然 乙種銀行 對金融組合의 利子協定問題는 全鮮的으로 될 運命을 持할지오 不然이면 朝鮮에 잇는 預金의 金利問題解決은 至難하게 되리라더라

朝鮮語獎勵試驗

總督府에서는 二十八日午前八時부터 光化門通法學專門學校에서 朝鮮語獎勵第三種試驗을 施行할 터인바 受驗者는 百四十四名이라 하며 因하야 全朝鮮各道廳 其他 樞要府郡七十八個所에서도 施行할 터인바 受驗總數는 千五百六十名에 達한다더라

刑務所長會議

十月初旬 總督府에서 全朝鮮刑務所長會議를 開催한다더라

八面鋒

○ 朴烈의 寫眞이 問題되고, 그 寫眞을 撮影한 것이 現法相就任時나 前法相在閣時나 하는 것이 또 問題되엿다나, 아무려던지 問題의 人物

○ 米國敎育界의 아버지『에리오트』博士가 죽어도, 慟哭한 者, 잇슴을 못들엇다, 그러나 그러타고, 人情이 冷酷함을 歎息마라, 活動俳優『바렌치노』가 죽엇단 말에는, 氣絶한 女子가 두사람式

○ 問題의 人物 馮玉祥이, 國民黨에 入黨하엿다고, 這間에 또 무슨 問題의 씨를 뿌렷는고

朴烈怪寫眞事件 撮影時代가 大問題 江木法相은 前法相時代라고

(東京電) 怪寫眞事件에 關한 小川氏의 公開狀에 對하야 江木法相은 該寫眞의 撮影時期에 就하야는 朴烈夫妻에 對한 豫審終了가 昨年七月임으로 其前에 行한 것은 確實하다 即 小川法相時代에 屬함은 一點의 疑心이 업고 是等에 關한 調査도 旣히 完成하여 잇다는 旨를 公言하더라

小川法相은 現法相에 公開狀

(東京電) 前法相小川平吉氏는 江木法相에 對하야 怪寫眞의 撮影事實을 明示할 것이다 萬若 余의 在任時代일 것 가트면 余는 責任을 負하기에 吝치 안는다는 公開狀을 發하엿더라

公開狀公表

(東京電) 政友會의 小川平吉氏는 二十六日 左와 如한 公開狀을 發表하엿더라

一部新聞紙의 傳하는바에 依하면 朴烈、文子醜怪寫眞撮影의 件이 余의 法相在任中에 된 것이라는 說이 잇는데 果然然한가 否한가 直其同時場所 並其顚末의 詳細를 公表할 것을 望한다 大逆事件의 被告가 對立하야 豫審廷又刑務所의 應接室에 出頭하엿다고 하면 其日時는 公公記錄에 依하더라도 直時判明될 것이다 故로 爲先 其日時 並撮影의 顚末 動機等을 公表하야 疑惑을 解함은 政府當然의 措置이라고 信한다 然하야 余의 在任中에 이러한 事件이 잇슬 것 가트면 當然히 責任을 負함에 小毫도 躊躇치 안흘 것을 玆에 明言함

責在余躬이면 斷然政界引退 小川氏決意

(東京電) 朴烈金子文子兩名의 怪寫眞問題에 關連하야 前司法大臣小川平吉氏는 責任云云問題로 政府에 對하야 公開狀을 發하게 되엇는바 政府當局의 回答如何에 依하야는 自己의 責任을 明白히 하기 爲하야 斷然히 政界를 引退할 決意를 示하는 中이더라

如斯政府를 國民何故默視 小川前法相談

(東京電) 小川前法相은 江木法相에게 公開狀을 發送하고 同夜 信州富士見의 別莊에 避暑하엿는데 車中에서 同氏는 語하기를 何時에 寫眞을 撮影하엿는지 알지 못할 것이 업다 刑務所에는 記錄이 잇슬 것이다 江木君은 豫審이 決定된 七月七日以前에 撮影하엿다고 余에게 責任을 지우려하나 余가 調査한바에는 十月인줄 안다 朴烈이 입고 잇는『후란넬』衣服이라던지 其他를 調査하야 보면 알 것이다 그러면 余의 責任이라는 것이 判明되면 余는 潔白히 政界를 隱退하야 天下에 謝할 決心이다 그가튼 大逆人에게 結婚의 儀式을 하게하며 豫審廷에서 怪態를 演케하는 等 ……面에서지 그 마음을 살 必要가 어데 잇는가 恐컨대 此는 江木一個人의 생각이 아니오 政府全體의 方針일 것이다 如斯한 생각을 가진 政府를 何故로 國民은 默視하고 잇는가 余는 政府를 倒할가의 決心으로 此問題에 當할 覺悟이다

內閣運命에 重大한 危機 撮影時期如何에 따라

(東京電) 怪寫眞事件의 第二問題인 것은 撮影時期가 小川前法相? 現江木法相?……어느 時代인가이다 此에 對하야 立松判事는 昨年七月九日頃이라고 記憶한다고 語하나 實際寫眞을 봄에는 七月氣候의 服裝이라고는 볼 수가 업고 寒氣가 甚한 三、四月이나 十月頃이라고 判斷하는 것이 妥當한듯하다 尙且 立松判事가 朴烈、文子가 豫審廷에서 傍若無人의 態度를 弄하야 손을 대일 수가 업시 그 마음을 사려고 撮影한 것이면 豫審에 入한 後 얼마 되지 안흔 時期 即 小川前法相時代라고 하겟고 更히 豫審終結紀念撮影이랄 것 가트면 寧히 江木法相時代가 되지 안흘 것이다 然하야 此點은 司法部內에서 直時判明될 것임에 不拘하고 江木法相을 爲始하야 司法當局이 此를 明瞭히 하지 안음은 甚히 不可解이라 하야 各方面에 政府의 眞意를 疑心하는 者가 多한바 右理由라고 觀測하는바는

一、怪寫眞이 撒布된 際 江木法相은『도라쿠』로써 撮影한 것이라 하야 司法部內에 關係가 업다고 言明
一、撮影時期를 明瞭히 하면 實任者處罰問題를 生할 것이나 現行法規로는 豫審判事의 立場이 自由인 外닭에 엇더케 할 수가 업고 萬若 此를 處罰하면 司法部內의 紛糾를 招하는 事
一、以上의 理由로 江木法相은 撮影事件을 不問하기로 하고 漏洩의 經路를 調査식힌 事

인바 旣報와 如히 小川前法相은 突然 公開狀을 發하야 江木法相에게 肉迫한 바이 잇고 江木氏도 亦 右事件을 暗中에 葬할 수가 업서 엇더케던지 糾明을 하지 안으면 안될 터인데 小川前法相의 策戰으로서는 萬一 此의 寫眞의 撮影時日이 自己의 法相時代일 것 가트면 自己의 責任을 지겟고 同時에 江木法相에 對하야

一、何故로 江木法相은 今日外지 本問題를 不問에 附하고 新聞에 發表가 되자 取調를 開始한 것과 가튼 것은 法相의 職務를 다한 것인가
一、法相이 何人일을 不問하고 旣히 朴烈文子가 如斯한 傍若無人의 行動을 한 以上、一片의 憐憫의 情을 與할 것이 아니다 然한데 法相은 減刑의 恩典을 奏請한 實任은 如何、法相은 自身이 恐懼의 念이 잇는가

의 二點을 根據로써 突際하기로 決心을 示하고 잇스며 江木法相으로서는 重大한 危機에 立한 것이라고 보지 안으면 안되겟다 更히 貴族院方面에서는 一齊히 此問題에 對하야 愼重한 調査를 開始하려 하야 其結果 深刻한 質問이 되여 議會에 出現할 것은 當然하고 特히 樞密院側에서는 平沼副議長을 筆頭로 非常한 緊張을 示하고 잇슴으로 目下議會의 問題로써 取扱하는 諸種問題의 中에 最히 重要한 問題로 取扱되겟고 또한 性質上 一時 虛僞의 辨明으로도서 此問題를 葬할 수는 到底히 許할 수가 업는 일이오 法相不信任案 乃至 內閣不信任案 又는 上奏案이 可決되는 際에 解散으로써 此를 報酬할 수는 問題의 性質上 許할 수가 업고 尙히 解散을 斷行하더라도 理由가 如斯할 時에는 勝算이 업슴은 明白하다 結局 內閣은 此問題로 總辭職이나 되지 안흘가? 如何間 來月初에는 貴族院、樞密院側도 此를 畢竟 問題化할 形勢이요 形便에 依하야는 急轉直下 內閣의 死命을 制하게 될는지도 未知이라고 觀測하더라

立松判事 東京密行

(前橋電) 群馬縣安中의 金井方에 靜養中이던 立松判事는 二十六日 秘密히 東京으로 向하엿다 大槪 怪寫眞事件에 關하야 急히 歸京할 事件이 起한듯하더라

立松判事附 奧山書記召喚

(東京電) 立松判事附書記 奧山軍治氏는 立松氏의 怪寫眞撮影……

鐵筆寫眞 —(投稿歡迎)—

英佛「이러케하고 나도돌지응…」

朴烈取調出張 怪寫眞經路를 알고자

(東京電) 朴烈、文子의 怪寫眞事件은 寫眞의 出處가 判明되자 犯人의 手中에 入한 經路도 짐작하게 되얏는바 朴이 立松判事의 取調室에서 盜出하야 此를 獄中에서 何者의 仲介로 他의 在監囚의 手에 渡한 事는 事實임으로 當局에서는 第一의 經路인 朴烈을 取調할 必要가 잇슴으로 二十六日午後三時 熊谷、岡田兩檢事는 千葉刑務所에 急行하고 이보다 먼저 千葉刑務所長은 是等協議를 하려고 午前中에 上京하야 立石刑事局長 吉益檢事正等과 協議하얏더라

無產農民學校 解散斷行키로 文部省態度決定

(新潟電) 新潟縣木崎村의 無產農民學校는 治安及思想上 其存立을 認定키 難하다 하야 文部省은 九月一日授業開始를 기달려 斷然 解散을 命하기로 決定하엿더라

◎寧邊特產인 朝鮮紬緞!!

實質이 證明하는 寧邊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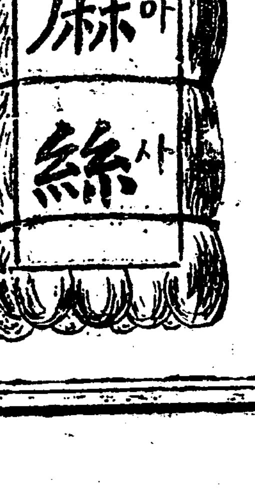
우리의 原料로 우리가 製織한 우리비단? 無紋熟素、花紋熟素、甲紗、各色明紬、亢羅가 寧邊의 特產物이다? 품질이 화려하고 직조가 견실하야 실용품에 뎍당합니다 — 또 원료를 자작급하는 관계로 가격이 아주 헐합니다 — 귀부인, 신사의 의복감, 신사숙녀의 혼수품(婚需品) 과(高評) 환영(歡迎)을 만이 바다옵니다 — 우리손으로 짜서 지어입은 우리비단을 한번 사용하여 보시요? 일시잠시 보기에만 좃케만든 외국비단에 비할것이 안입니다

어느곳에든지 紬緞商店에서는 다 — 팜니다

平北寧邊織造組合販賣部

電話寧邊二三番 振替京城一三七六一番 朴明化 白

麻布製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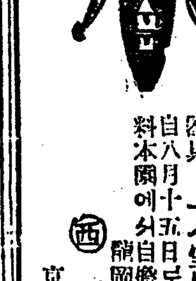


麻(아)絲(사)

販賣店募集

◎從來一疋짜는대 數十日걸니는 麻布가 三四日이면 짜짐니다
◎麻絲見本、定價表、說明書는 申請次第로 送呈합니다

資本金參千百七拾五萬圓 帝國製麻株式會社 京城出張所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五十二番地 電話本局一八三〇番 電略「ケア」



巢礎 器具 大割引販賣
自八月十五日至九月三十日外지 荷造料本園에서 自擔 御照會하시면 目錄進呈
西 西鮮養蜂園 京城振替一四八八二番

模範 自動車運轉士의 養成과 紹介
無經驗者를 實任지고 模範運轉士가 되게함 學費低廉 就職紹介
入學案內書는 二錢切手封入送 ● 京城岡崎町 朝鮮自動車研究所

약효증명
眞(진)正(정)末(말)
원긔, 신경, 정신,
불매, 신긔, 산전,
산후, 경도, 자궁,
요통, 두통, 풍종,
각긔, 체긔, 매독,
림질, 숨창, 등에
백발백중
藥價 十三日 五圓五分 / 五十日 九圓九分
감사장은 신문에 발표치 안이하옵니다
京城鍾路一丁目三十九番地 一生堂
代金引換은 藥方으로 迅速郵送함

◎ 신긔한 약이 나왓소

鴨綠江再次增水 北朝鮮에又洪水亂
삭주이북은교통이전부두절 龍川地方만浸水六百

이십륙일에 평안북도 지사로부터 경무국에 착뎐된것을보면 이십오일 오후부터 평북디방의호우로인하야 압록강의 증수는이십륙일에 신의주에서 십삼척에달하고삭주(朔州)이북은뎐신뎐화가 불통되야피해상황은 판명되지아니하엿스나 룡천군 양서면쟁류동(龍川郡楊西面彭棚洞)은오후일곱시에 데방이문허저서 침수가옥 오백칠십호에 달하야그중구조를 요할만한것은 백호로리재민은 륙백여명에 달하엿슴으로 소관서장을위시하야 경계구호중임으로 아직은 인축의사상은업스나 가옥이 류실될념려가잇다더라

各地水位

이십륙일이래 원산(元山)이북의 폭풍우로인하야 각디의수량은 함흥(咸興)십이척 영흥(永興)이십척 북청(北靑)십이척 장진(長津)십칠척 혜산진(惠山鎭)십오척에 달하엿스며 뎐신선의 고장은 함흥이북의 각선이이십륙일밤 열한시부터 전부불통되엿든것이 이십칠일 오전구시경부터 점차개통되는중에 잇스며원산송강선(元山松江線)도이십륙일밤의 호우로인하야 수신부(受信部)가파손되엿슴으로경성을경유하야 중계하는중이라하며 원산디방은 이십칠일아츰부터 련디가쾌청되엿더라

雲容과雨態 廿七日測候所發表

중국남부(中國南部)에이러난 태풍(颱風)은 그나가는길을 북동(北東)으로 박귀가지고 이십칠일 아츰에는상해(上海)의 북쪽을 거처대부분이 조선에 접근하야왓는바고긔압(高氣壓)이반도의 남부에몰출하야 잇슴으로 이십팔일은 바람과함씌약간의 비를 가저올는지도모르리라

豫想―曇 雨模樣

大寧江氾濫
데방오백여간이문허저서 雲田平野黃海化

곳곳마다 처지안흔 피해를내이든폭풍우는 황해를거처 다시평안일대를 엄습하야 그피해가곳곳마다 다대한모양인데 지난이십오일 저녁부터 퍼붓든폭풍우로대녕강(大寧江)은각각 증수되든바데 필경범람되여데방(堤防)오백여간이터지여운뎐평야(雲田平野)일대는도도한황해(黃海)로 변하는동시에 농작물은 물론이고 도괴류실가옥이이십여호에 달하야 피해가막심하다는데 자세한것은 방금됴사중이라더라(운뎐)

水利組被害

총독부에 도착한뎐보에의하면신의주압록강(新義州鴨綠江)은십구척의증수를 그대로 지속하고상류디방은아즉도 비가계속하야 내리는중으로 얼마수량은 더느러가는모양인바평북관내 수리조합의피해는아래와갓다더라

三橋水利組合 堤防千二百間決潰 千町步浸水
同仁水利組合 堤防四千間決潰 千二百町步浸水
博川水利組合 七百町步가洪水에잠기고마럿다

이상과가튼보도를접한총독부토디개량과(土地改良課)로부터는 기술원(技術員)이급행하얏더라

各地通信杜絶
뎐신뎐화는전부불통

이십륙일오후에 북부조선과 압록강연안디방을 습격한 폭풍우로인하야 뎐신뎐화의 피해가만어서 경성해삼위선 경성청진선경성함흥선기타 원산이북은 불통이되엿스며 단천북청(端川北靑)간은 자동차톄송조차중지안할수업게되엿스며 또압록강 방면은신의주의증수이십팔척에달하야 신의주창성(昌城)간의 자동차톄송이 중지되고 신의주강계(江界)간의 뎐신이불통된까닭에당분간 통신의 길이업다하며 더욱이 상류디방은정보가분명치못한까닭에 확실한것은알수업스나 피해가매우 만흔모양이라하며 원산방면의 뎐신은이십칠일오전일곱시경에 경성 해삼위경성함흥선등은 개통되엿스며 남어지 뎐신도뎐긔회복됨을 딸아곳개통될모양이라더라

滔滔한黃海에 舊市街沈沒
안동현에또다시물란리 其外浸水四千

압록강의 증수는이십칠일에이십척을돌파하야 안동현(安東縣)일대는또다시물란리를맛나게되야 중국인구시가(舊市街)는송두리채홍덩물에 잠기엿고 그부근각처의 침수가옥만실로 사천여호에 달하엿스며 수만의피란민은 각처의피란소로 수용하는중인데 물은매시간에일촌식증수되는중이더라(안동현특뎐)

聯合葬도禁止
고박순병군유해는 廿八日故鄕에

고박순병(朴純秉)군의장의에대하야는 시내각동지단데에서 지난이십오일밤에 시내견지동(堅志洞) 로동총동맹(勞總總同盟)에 모여서 협의한결과 빈소(殯所)는 시내재동명우회관(正友會館)으로뎡하고장의는사회단데련합장(社會團體聯合葬)으로 하엿든바 이에대하야 소관종로(鍾路)경찰서에서는엄범만간섭을 하야 사회단데련합장은 못하게 하는동시에빈소까지도엇더한 단데의회관에두지못하게하야 현재의 빈소는 고박군의 종형되는 박일병(朴一秉)씨가잇는집이라하야 그외친족에게 인도한다는형식으로 넘겨주게되야 장의는 할수업시련합은 못하게되고 부고(訃告)와지도 우인대표(友人代表)로 하게되엿스며 군의시테는 이십팔일오후오십분발렬차로 군의고향인 함북온성군온성면 주원동(咸北穩城郡穩城面周原洞)으로 보낸다더라

沈菜桶中에서 拳銃卌六挺發見
대판수상서에서발견활동 氷囊엔實彈數千發

대판수상서(大阪水上署)원은이십오일에 대판역하급소(大阪驛荷扱所)에일으러써마츰 도착한동디북구북화뎡(北區北花町)치물상(漬物商) 풍뎐상뎜(豐田商店)으로부터중국봉텬송도뎡(奉天松島町) 정상상뎜(井上商店)으로가는「우메보시」통여덜개를압수하엿든바 그가운데는 「모젤」식권총이십자루와「색로닝」식권총 열두자루를 너흔우에다가「다쑤왕」을채웟스며또는어름주머니에 탄환수천발을 너허서는「우메보시」를채웟슴으로봉텬으로 총긔를밀수하는것으로도 판명하고 즉시범인톄포에 착수하엿스나 범인은어느듯 형적을감추엇다더라(대판뎐보)

大邱眞友聯盟
관계자륙명만송국

루보=대구 중대사건인 진우련맹(眞友聯盟)은 일개월이나 밤낫을 헤아리지안코 계속심문하든중 지난이십사일에 겨우률원(栗原)외 오인에대한 사실심문을마친후 검사국으로 서류와함께보냇스며 남은칠팔명에게 대하야는 아즉도 계속심문중이라더라(대구)

危險免한汽車
통행인의주의로 위험을면하게돼

이십륙일오후 다섯시경에 데일렬차가경의선 령미,운뎐(嶺美,雲田)간을 진행할즈음에엇던사람한명이 선로가운데서 렬차진행을 중지하라는 신호를 하엿슴으로 로동렬차는 중지하고 현장을탐검하엿든바 과연선로가 다소붕괴되야 위험하엿슴으로 다시속력을줄여 진행하야위험을 면하엿다는데 전긔위험을 면케한사람은 평안북도 박천군 서면청산동(博川郡西面靑山洞) 김구석(金邱碩)으로당국에서는방금그긔특함을사례코저하는중이더라

赤化宣傳文發送
『幸運書信』을본떠 대전의소인이찍혓슴으로 大田署突然活動

모처에 도착한정보에의하면 충청남도부여군(扶餘郡)에잇는모보지국에 도착한 서신한장이잇슴으로 펴서보즉 내용은례의행운의서신(幸運書信)을본떠서현금사회제도의 불합리함을 력설(力說)하는 일종의 적화선전문인바대뎐(大田)의소인(消印)이찍혓슴으로 방금 대뎐경찰서에서는 대활동을 개시하얏다더라

艾妻飮毒

황해도안악군룡문면 상덕리(黃海道安岳郡龍門面上德里)에사는강운숙(姜運淑)(二八)의처는 지난이십삼일밤에 양잿물을먹고 자살하려는것을 집안사람들이알고 응급구원을한바 생명에는 관계가업다는데 자살하려든원인을 탐문한바에의하면 가뎡불화로 그와가티 자살하려든것 이라더라(안악)

書家의珍奇한訴訟
=그림그릴수업다고배상청구= 請求額은二千五百圓
붓끗을만한까닭에속이상해서

그림을그리는화가(畵家)가봉변을한까닭에 속이상해서 그림을그릴수가 업섯다는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진긔한소송이 잇다 대판부하남하내군지긔촌자지긔(大阪府下南河內郡志紀村字志紀)에사는화가회송량평(檜松良平)과밋그의처「게이」의두명으로부터 집주인되는비뎐희평(肥田嘉平)에게 손해와밋위자료(慰藉料)로이천오백원을 청구한 소송의구두변론이이십륙일대판디방재판소에서개뎡되얏는데내용을들은즉 원고는 피고의집을빌어가지고 살아오든중 금년칠월부터는 집세를주지못하얏든바 지난삼월에 집주인은 집세대신에 원고의세간을가저가며 낫븐말로 봉변을준까닭에 속이상해서 그림그릴용긔가나지안을뿐아니라 그림그리는도구(道具)를모다 빼앗긴까닭에 이십일동안을 그림한장도 그리지못하엿스니 최소한도 매일그림한장에 이십오원식의 손해금과 명예훼손의 위자료 [illegible] 중이라더라(대판)

平壤火災
집안사람은모르고 통행인이발견하여 損害五千圓

오래동안의비가 개인지얼마 안되는 지난이십오일오후 열한시삼십오분경에 평양부리향리(履鄕里) 구십이번디송승곤(宋承坤)의집에서는돌연히맹렬한 불길이일어나 첫잠이 집히들은 송승곤의가족들은 아지못하는것을 큰길거리인까닭에 즉시 통행인이발견하고 소방대와 경찰서에급보하엿슴으로 소방대원과 경관이출동하야 진화에 로력하야 소방대원중 두명의경상자를 내이고 필사의로력으로 그이튼날 오전령시 삼십분경에야 마츰내 진화되엿는데 송승곤의가옥일동을전소하여오천원가량의손해를내인후진화되엿는데원인은방금됴사중이라더라(평양)

姊妹溺死
평남강동군

만달면 립석리(江東郡晩達面立石里) 오백륙십삼번디 오진국(吳鎭國)의딸 오순화(吳順嬅)(九)와오정화(吳正嬅)(六)는지난십구일 오후두시경 대동강상류인 릉성강(陵城江)에서 가려목욕하든바 두소녀가모다 수영할줄 모르는터임에도 불구하고 물깁히 나갓다가 마츰내두형데가 한강에서 수혼이되엿다더라(평양)

激流에渡船顚覆 數十餘生靈慘沒!
자식은아비찾고아비는자식부르고 남편시톄를부여잡고몸부림처울어 洪水後順川의慘劇

평남순천(平南順川)디방에는금춘이래로 한발이계속하야 인심이흉흉하다가 이항은수차본보에보도한바어니와 월전부터 비가나려 퍼붓기시작하야 정홍강수의 증수는수삭처에달하자각처의교통이 두절되엿다가 비가근치고강물도 얼마줄어졋는데 지난이십일일은 순천장날이라 만흔사람이나루배로 왕래하든중 동일오후다섯시경에 백여명이탓든 나루배가 업더저서만흔사람이 두참이물에싸지는참극이생겻는데 더러는 건저내엿스되 사나운물결에휩쓸려서 속절업시 참사한 사람이 무려수십명에 달하엿스며이어슬흔소식을듯고 그가족들은 련방디축으로강가에 몰려들어가족의시테를찻노라고매임인산인해를니루는데 부모를부르는자식자식을부르는부모 사랑하는남편과형데의시테를부여잡고 몸부림을하며 한울을 우러러구슬피우는참경은산천초목도눈물을흘릴디경이며 물결이 원악쌜라서아즉까지시테를건지지못한것이십여개요 지금까지 건저낸것은세개에불과하다더라(은산)

機關車庫火災
손해륙천원

지난이십삼일오후열한시경에평남대동군대보면 룡인리(大同郡大寶面龍仁里) 륙백삼번디에잇는 삼릉탄항(三菱炭坑) 소속의 긔관차고(機關車庫)에서는돌연히불이일허나 삽시간에 화염이 맹렬히올라오는것을 화부(火夫)혈견변차(穴見辨次)(三五)가 발견하고 즉시급고한바 이에동탄항부오십여명이출동하야진화에로력하엿슴으로 이튼날인 이십사일오전한시반경에야 마츰내 긔관차고일동은 전소하야 륙천여원의손해를내고진화하엿는데 발화원인은 됴사한결과그 전날 그긔관차는사용한후 이튼날의준비로 화긔(火氣)의 삽분이를남겨둔채 모르고 그엽헤유포(油布)를노아두엇든것에불길이 다아서 그와가티 발화된것이라더라(평양)

盟罷船夫復業
복정은필경굴복

루보=오래동안 평양부외 선교리(船橋里)조선뎐흥회사의청부업자 복정(福井)을 상대로지구전을 계속하여오든 평양대동강선부조합에서는 내용을혁신하야 역시자본가인 동시에상대자복정과 평소감정문데가잇서일반의 싀의를사든중 조합장등정(藤井)씨를 퇴거식히고 명의를대동강선운조합(大同江船運組合)이라 개칭하며 조합장은최재학(崔在學)부조합장 문찬영(文贊永)리사최윤옥(崔允鈺)이하십오명을선뎡하야 진세를정연히하고 그동안복정과의교섭이잇든중 지난이십오일 선부의 유리한조건으로 매일돈에대하야 오전인상을 오는구월이십일부터 실행키로 타협하엿스며 지난십일일 가처분당한 이십척선박의 선부일동에대하야는 화해조인하는 동시에 원만해결하야 선부일동은 복업하엿다더라(평양)

控訴公判
許時模= 일심구형대로 體刑을求刑

피보=소년 김녕섭(金寧燮)(一三)에게 사형(私刑)을감행한 미국인 허시모(許時模)(六)의공소공판은 지난이십륙일 오전구시이십분 평양복심법원 재등(齋藤)재판장주심과 대소(大沼)검사 립회와 김(金)소출(小出)량 배석판사의 출석으로 동법원형사법뎡에서 개뎡되여 우선동사건의 관계자 근등(近藤)통역관의 선서가잇슨후 이어 재등재판장으로부터 피고허시모에게대한 취됴한심리가 장시간이엇섯스며 허시모는 소위사형(私刑)에 대하야 이를법뎡에서 과장하게 취하거니와 실상은 김녕섭을징계하엿슴에불과하다는항의가잇섯나자 대소검사의 론고로들어가 이사건은인종뎍차별에 돔이아니라 실로 김녕섭으로 말하면 소년의 보농으로 그나히에 잇서서는 피치못할 작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고학교졸업자로 의사요 종교가로서농 몃개를 땃다는일로써 소녀의 색기도포승하고그의모진윤(秦)씨를청하야 반위협뎍으로 소위 숫탁을바다 옷가튼 소년의 뺨에『도적』이라고초산은(硝酸銀)으로 썻다는것은 인도정의상도로 용서할수업는바 데일심에서삼개월구형하엿슴에대하야이를 집행유예이면으로 판결됨은 부당타하야 역시 삼개월의실형(實刑)을 요구하엿는바 이에삼정(三井)변호사가 피고에 대하야 무죄혹은 과료처분을원한다고 데일심에서 시험한변론을되풀이하야 장시간에 니르럿는데 이보다 몬저편강(片岡)박사의 김녕섭상해감뎡의 재감뎡과 증인심문의 재청이잇섯스나 합의(合議)뢰각을당하엿스며마즈막으로 재등판사가 오는구월이일오전구시 동법뎡에서 판결언도키로하고 폐뎡을 명하엿는데 때는정히 오후한시이십분경이엿다더라(평양)

假專賣局員强盜
우매한촌민의담배빼앗고 강도질까지하흉한공판 檢事는十年求刑

경긔도 김포군월곶면포곶리(金浦郡月串面浦串里) 일백사십구번디주규석(朱奎錫)(三五)이란자는지난 대정십사년 음력으로십이월초순경에 해주군고산면(海州郡高山面)엇던사람이 입담배(葉煙草)를가진것을보고자긔는 전매국원인데 벌금을 내이라고 공갈하야 현금십오원 편취한것을필두로 각처로돌아다니며 그와가튼수단으로 공갈 취재한것이일곱건(件)이며또한그후금년사월이십삼일에경긔도양주군백석면홍죽리(楊州郡白石面弘竹里)김순긔(金順基)의집에 단도를들고 침입하야 돈을내이라고 위협하고 현금일백사십사원오십전 강탈한것을 비롯하야 그와가튼수단으로 각처로돌아다니며 강도를범한것이삼건(三件)에달하며 기외에도 또한절도를한것이 수삼건이엇는데 이십륙일에 경성디방법원 데철호법뎡에서 공판을 강등(江藤)판사심리와 송전(松前)검사의립회로개뎡하얏는데 강등재판장은 징역십년을 언도하얏다더라

電車와自轉車衝突
고양

군한지면신당리(高陽郡漢芝面新堂里)삼백팔십이번디 김홍긔(金弘基)(二三)는 지난이십륙일오후 일곱시 사십분경 자전거를타고장충단(獎忠壇) 방면을향하야 가다가팔십오호뎐차차장대(車掌臺)에 충돌되여일시는 인사불성이되엿다가 곳부근병원으로다려다가 응급수당을한결과 생명에는 별로관계가업스나 전치까지는 약삼주간가량걸리리라고

縊頸後投海
=목을맨뒤에또바다에뛰어들어죽어 죽은원인은도모지알수업다고= 四代채變死

지난십오일 오전일곱시 경에 동리에사는황용석(黃龍錫)(二五)이란 용감스럽고 담대한소년이 그날아츰에 마츰호리에 볼일이잇서 해변으로 내려가는길에 잔교(棧橋)부근에서 시테한아 가떠단이는것을보고 즉시 달려들어가 손을쏠흘쏘으려는데 그시테는 함남북청군양화면동리(咸南北靑郡陽化面東里), 최유명(崔有明)(三)으로판명되엿스며 그안해의 말을드른건대 부부간불화하야 싸운일도엄고 타인의부채진일도 업다는데 시테발견하기전날 아츰부터 종일토록쉬지도 안코 부즈런히 일을하다가 저녁을먹은후 어대로 나갓는데 마츰그때에 가티배타는 사람들 오전 열두시경에 신포에잇는 공의가 출장하야 해부한결과 목에 피가 매첫슬뿐이요 전신에아무상처도업고술도먹지안흔모양이매 자살로인정 한다는데 당디주재소에서는 그자살한 원인을 조사중이라하며 풍설에의하면 그집안은 최유명이까지 사대(四代)나홀아비로객사자살하엿다고하더라(양화)

各地流行의 幸運의信書

평북박천군내(博川郡內)에도행운의편지가 만히류행함으로 경찰당국에서는 그를 수색하기위하야 분주한중이라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간박천경찰서(博川警察署)에서 발견한것도적지 아니한모양이라는데 령미디방(嶺美地方)에서만 검거된 사람이십여인에달한다더라(령미)

朝鮮『호텔』에 溫突客室을設備
=조선료리도청구하면수응하고 기생도다리고가서놀수잇다고= 冬節에는大繁昌?

시내장곡천뎡(長谷川町)에잇는「조선호텔」에서 조선식 객실을설비한다 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이제그료금에대하야 일호방에는 주간(晝間)오원, 야간(夜間)팔원인데 주야전용이면십이원이라하며 이삼호실은 주간오원,야간칠원이며 하루에십원이라는바 일실(一室)에 이십명가량은 홀홀이 들어잇슬수잇스며 종종히잇자면 삼십명까지라도 넉넉히들수잇다는바 두간을 통하게되면 오십명가량의 연회도 할수잇다는데 일품조선료리라도 주문에응하야취차(取次)할터이라하며 기생도불러다가 다른곳에서나 다리고 함께올때에는 보통손님과 한가지로 취급하야 다른손님들에게 큰방해가 되지안는범위내에서는 관계치안을뜻 하다는데 눈이나와 일동절에는상당히번화할뜻하다더라

종명자

▲조선사람들아!우리는날마다너무도슯흔소식을접하고잇다우리가가장밋고우리가가장앗겨하던두조선의일꾼을 일흔것이즉그것이다▲이십오일저녁에박순병(朴純秉)이란열혈아(熱血兒)를일흔우리는▲다시이십륙일낫에라빈(羅彬)이란총아(寵兒)를일헛다▲이무슨악착하고 슯흔소식이냐?▲거칠고거칠한 조선의가삼에신생(新生)의광명(光明)을 던질쑤업시가저오기에분골쇄신(粉骨碎身)하던이두젊은 사나이를일흔▲조선사람은 울어야 조흘것인가?우서야조흘것인가? 그러나 이두사나이의 아름답고빗나는 행적(行蹟)은길게조선의씨에서빗날것이다 조선사람의씨와 조선의 사람들은 슯허하며 락명이되는중에도 오즉그들이 남겨노흔광명에잇서서 곳게살기를 한의약속하여라!

幼弟를救出타가 三男妹一時溺死
=어린동생구하랴다가누의가싸지고 누의와동생건지다가또형이싸저서= 눈물겨운同氣愛

평남맹산군애뎐면령유리(孟山郡愛田面鈴臾里) 사백이십구번디리승규(李昇奎)의맛딸리종인(李鍾仁)(三)은 지난십삼일오후한시반경에 그의옵바 리종수(李宗秀)(七)와 리종선(李宗善)(四)을다리고 동곡강(同谷江)의 시내물에 노힌다리우로 몰아오든중 리종선이가그릇다리우에서떨어지는것을 구코저 헤매다가 더부러 떠러지고그뒤를따라서리종수역시두사람을구코저헤매다가역시물에싸저세삼남매가한꺼번에 애처로운 죽엄을 니루고말앗다더라(평양)

含乳甘睡中慘死
어린이들이치여서즉사 暴風雨로생긴慘事

지난십사일 오후열한시 경평남맹산군 지덕면효리(孟山郡智德面孝里) 일백륙십번디방영국(方永國)의집이 온밤동안 요란하든 폭풍우가심하야 돌연히 문허저서 방영국의처의 젓속지에 부러저서 잠이깁히든아들방현옥(方賢玉)(一)과 맛아들방현선(方賢善)(三)두명은무참히도압사하엿다더라(평양)

朝鮮庭球協會主催·本社後援

代表權을決할 各地豫選戰
半島六處에서一齊히 二十九日에擧行한다

朝鮮庭球協會主催本社後援第二回全朝鮮庭球選手權大會에出場할各地豫選大會도이제二日밧게남지안엇다 불볏아래그동안猛烈한練習에鍛鍊된各地數百數千의選手들의運命을決할날은이제臨迫하얏다京畿大會를비롯하야平壤 大邱 元山 木浦洪城等地에서一齊히二十九日에豫選大會를열터인바各地의抽籤은或은本紙夕刊에或은明日朝刊에發表케되얏다

抽籤結果와 審判委員發表

京畿大會委員會를二十六日午後七時半에열고大會審判委員을다음과가티決定하얏스며抽籤結果도別項과가티決定되얏더라

審判委員長 尹韓炳 ▲委員 延鶴年 金鍾遠 李吉用 姜熙鎭 李世禎 尹鍾悳 金源泰 李一 安達鍋 李重宰

審判委員會 廿八日夜本社서

京畿豫選大會審判員會를二十八日午後七時半堅志洞本社會議室에서열고이번大會에使用할朝鮮庭球協會所定의日本軟球協會規則을여러가지參照하야審判의權威를發揮하도록힘쓸터이더라

慶尙大會
戰前부터緊張된 三笠町코트에서

慶尙大會는本社大邱支局의後援으로來二十九日午前八時부터大邱三笠町公設코트에서擧行할터인바大會에參加한總組數가實로五十組에達하며그中에는昨年보다日本人選手들이만흐며有秀한選手들이만흔것만큼더욱戰前부터緊張한빗이가득하엿다抽籤結果는朝刊에

서울6A中央5

東亞主催四俱樂部野球리그戰第二日서울對中央戰은廿六日午後一時五十五分徽文球場에서孫孝俊(球)李泰維金貞植(壘)三氏審判中央先攻으로開戰되바서울軍三回一點四回二點合三點을리드하고中央五回까지노홈이다가六回中央一點을奪하고八回에一擧四點을어듬에反하야서울軍六回二點七回一點을加하야遂히六A對五로서울俱樂部勝하엿다

서울				中央
8馬春植	28	打數	32	6金泰鎬
3朴点壽	5	安打	5	2朴鐵祀
5李洪敏	4	三振	3	7金文兗
2咸龍華	6	四死	4	4徐相國
6白基珠	4	犧打	5	5金泰吉
4金洛顯	5	盜壘	1	8朴天秉
7權正奎	3	失策	10	1金壽永
9韓麒錫	8	殘壘	5	9趙容林
1金永爽				9洪文吉
1金範山				3文甲度

中 000001040=5
서 0012021 0A=6A

鐵道8大連1

大連商業對鐵道野球戰은二十六日午後四時十五分龍山鐵道球場에서須田(球)上原安達(壘)審判鐵道先攻으로開戰八對一로鐵道軍大勝閉戰六時二十分

三高野球勝

一高對三高野球戰은二十六日午後二時四十四分京都三高球場에서梅田(球)二出川,高須(壘)三審判一高先攻으로開始一高一回一點六回一點八回一點을入하고三高는一回三點六回二點을得結局五A對三으로三高勝閉戰四時半(京都電)

第二回神宮競技
十月十五日부터

朝鮮體協主催第二回神宮競技大會는十月十五日부터三日間京城運動場에서擧行하는데順次如下하더라

十五日=野球
十六日=野球 排球 籠球豫選蹴球中等部決勝트랙필드庭球
十七日=野球決勝 排籠球決勝 蹴球一般決勝트랙필드庭球

廿八日의運動

▲高麗對中央戰 은午後一時부터徽新對서울戰은午後四時부터徽文球場
▲大連商業對殖銀戰 午後四時부터京城運動場

全朝鮮庭球選手權 京畿豫選抽籤
二十九日京城運動場에서

第一回戰
A코트
一、開城(張鉉淳 孫松澤)—府營(江川 島崎)
二、金剛(崔世永 李永鎬)—京工(井上 上田)
三、殖銀(河村 吉村)—京鑛(有田 林)
四、實業(張丁炳 李炳新)—商銀(中澤 趙元田)
五、京鑛(橫井 湯地)—鐵道(中川 秋山)

B코트
一、仁川(高橋 朴)—遞信(鈴木 池田)
二、鮮銀(尾崎 ?)—安田(吉田 植田)
三、京城(今泉 堀田)—濱坡(兵承武 宮島)
四、開城(孫昌成 劉崇東)—消防(內田 吳在衡)
五、安田(南宮 金子)—商銀(高木 朴)
六、消防(山石 外原)—仁川(林口 渡邊)

第二回戰
A코트
一、無勝(崔燦稷 崔興稷)—A一二回戰의勝者
二、京商(稲川 山川)—永華(金世根 魯金錫)
三、永華(朴偰成 孫正信)—仁川(三澤 木井)
四、殖銀(片岡 松本)—遞信(菊池 茂)
五、商銀(本田 村田)—林友(文 徐)
六、鐵道(長沼 古屋)—京商(水島 大熊)
七、消防(吳在衡 吳聖元)—B一六回戰의勝者
八、京城(田所 小山)—A一五回戰의勝者
九、實業(朴南宮 抜菜)—A一四回戰의勝者
十、金剛(孫金 鳳鎬 星)—A一三回戰의勝者
十一、商銀(源尾 平崎)—A一二回戰의勝者
十二、鮮銀(長谷川 丸山)—A一一回戰의勝者
十三、太陽(沈曦燮 池盛澤)—無勝(李鶴洙 ?)
十四、府營(片山 中瀨)—遞信(菊池 鈴木)
十五、鐵道(矢野 宮島)—鮮銀(丸山 佐藤)
十六、永華(金百年 朴安獻)—殖銀(朴本田)

B코트
一、商銀(吉田 渡邊)—京鑛(岩下 日田)
二、京商(背井 永木)—永華(徐斗 孔漢祚)
三、松高(劉孟相 龐殷錫)—京商(池田 浦本)
四、鮮銀(安達 中川)—京鑛(北村)
五、鮮銀(有江 浦岡)—殖銀(島安)
六、鮮銀(鵜飼 谷)—金剛(張元珍 丁奎)
七、開城(金明桓 宋元)—B一三回戰의勝者
八、京鑛(美濃 松島)—京商(五郞 加來)
九、實業(伊野 藤田)—法晉(美)
十、遞信(保住 小嵐)—B一二回戰의勝者
十一、京城(大原 栗地)—鮮銀(馬場 原口)
十二、鐵道(湯山 古賀)—鈴木(丸田 山中)
十三、金剛(金永植 吳命煥)—太陽(洪 朴)
十四、善隣(森岩 永田)—B一四回戰의勝者
十五、仁川(松岡 村木)—B一五回戰의勝者
十六、遞信(橫兒 井玉)—永華(全興淳 劉開東)

二回戰이畢한後三回戰부터는當場에서抽籤을行함

稻香羅彬氏以宿患으로八月廿六日午後一時南大門通五丁目三一番地自宅에서別世玆以訃告

發靷 廿八日午前十時
葬地 梨泰院

父 弟 友人總代
羅聖淵 羅朝華 玄鎭健 朴鍾和 洪思容 金基鎬 朴英熙 金東煥 康想涉 梁白華 崔獨松 方仁根 金乙漢 崔梁德

宜人密陽卞氏以宿患今月二十六日(陰七月十九日)午前九時別世玆以告訃

發靷 八月廿九日午後五時京城府黃金町二丁目五十番地自宅
安葬 八月三十日午後二時楊州郡瓦阜面鎭中里先塋
返虞 八月三十一日午後六時東大門外安甘川
供花放鳥依遺志謝絶
大正十五年八月廿七日

夫 嗣子 孫 女婿 親族代表 護喪
尹金金趙李趙崔 金
昌東東秉台光熙斗泰喆東東漢
圭衡振濟環鎬周煥煥煥贊獻益性

梅毒?
신구병의매약이무효하며년년경발되난천하악증이라도본원에는한제복용이내에근치되야 평생경발치안이함 약가상품십원, 완고용별품한제삼십원 송료륙십오전

淋疾?
남녀간임질에 매약이무효한 치의고질이라도본원비제의 몰근가두제쓰면 불과일이십일분에 소변으로가래충갓흔부정한것이연졸하고근치되야경발치안 난세계적선약을써보시요 약가 상품칠원, 완고용별품십삼원 송료륙십오전 一만명에본원제를써서조곰이라도불만하면어머의사지라도무료로전치해드림을정명하오니의려마시고써보옵시요

京城府禮智洞二十五番地
內外科及各科 濟衆院
電話光化門一一六四番 振替京城一五○壹壹二番
京城寬勳洞五一 大東藥業公司

東京學校一覽表
定價共五拾錢(切手代用七錢增)
東京池袋三 帝國教育通信社 振替東京四六八四五番

色白하게됨
色이검거나벌건분여드름, 죽은깨여헌건어름은三錢切手封入郵送하시면色白하고美麗하게되는良藥을封書로通知합니다
東京本鄕二丁目六番地 久保さち子

朝鮮日本間의通信料金統一問題는耳久의懸案으로 [illegible]
海底電信 [illegible] 線이든다는理由는不得已하야부 [illegible]
此의 [illegible] 會에 [illegible] 案으로 [illegible] 批案된事가잇고 [illegible]
하얏다、그러나日鮮間海底線 [illegible] 每日一萬通 [illegible]
鮮間의 [illegible] 에附할수업는 [illegible]
(東京電) [illegible] 하기 하야試驗施行 [illegible] 하는方法
[illegible] 學校와 [illegible] 하야在籍 [illegible]
와共히 [illegible] 革을加하려고 [illegible] 中이더라
는二十五日午後五時半 [illegible]
租界로가리라더라

가뎡부인

삼변으로 조선을위협하는 호렬자병
◇……그병원과치료법(三)
全治醫院 全鎭極

호렬자발작긔(虎烈發作期) 이때에도 전긔와가튼 증상이잇고 또한 구토가심하야 위장속에잇는 물은전부토하여 버리는고로 톄내의 수분이결핍하야 피부(皮膚)는주름이잡히며 눈(眼)은 쑥드려가서 잘뜨지도 못하고잘감지도못하는고로 호렬자성토안(虎烈刺性兎眼)이라합니다 다심장(心臟)은잘움지기지못하고수족은심히차며 입살과 손톱등은 백색으로변하여 오좀(尿)은감소하여지며 참자에는 흡수하는힘이업서져서번갈(煩渴)이심하여집니다 이때에는 음성(音聲)이 변하고 현훈(眩暈)이 심하며피부는궐랭(厥冷)하고 호흡은곤난(困難)하며 가슴은갑갑(胸內苦悶)하야 천천히수상태에빠져절맥긔(絕脈期)로옴기어가서 혼히귀적(鬼籍)에오르는일이만습니다

▲절맥긔(絕脈期) 이때에는 전신의수분이 다업서진고로혈액(血液)이농후(濃厚)하야 혈관(血管)으로 순환되지못하야 동맥(動脈)을 절개(切開)하더라도 혈액의류출하는일이희소합니다 이때는 수일을경과치못하고 사망합니다

▲회복긔(恢復期) 본병자가 련행으로 절맥긔에이르지아니하고 모든증상이 중지되면 소생(蘇生)의희망이 잇슴니다

▲예후(豫後) 본병은『페스토』담에위험한병입니다 그사망하는률은 각류행하는 시긔를따라 차이가잇슴니다평균五○%나六○%이상사망합니다 류행하는 처음에는 사망하는률이만치마는 점차로감하야 나종에는 三%이하에 이름니다 이병에걸리면 한긔후은 이를에 사망하지마는 련행으로생명을 구하더라도 후이병(後貽病)으로 호렬자 병경과하는중에 여러가지긔관이 약해저서 후일에 병으로죽게되는일이잇슴니다 위험한일은 각개인에게 차이가잇지마는 십년미만 혹은로인은 예후가 조치못합니다 허약한사람,종전부터 질병이잇는사람,임부(妊婦)등이 이병에걸릴때는 예후가 조치못합니다 요리(尿利)의 관계는 예후상필요합니다 소변잘보는사람은 사망하는률이 적지마는 소변잘보지못하는 사람은 반수이상은 사망합니다

예방법

▲공중뎍예방법(公衆的豫防法) 이병은 타국으로부터 수입되는고로 수입방알법(輸入防遏法)을연구하며 류행디로부터 오는선박(船舶)의 검역법(檢疫法)을 엄행(嚴行)하며 만약불행하야이미병이 국내에 침입한때에는 만연방알법(蔓延防遏法)을 강구함이 필요합니다

▲개인뎍예방법(個人的豫防法) 호렬자 류행디에서는 음식을 적게섭취하며 엇더한 음식물이던지 다끄리(煮沸)며 보게못하며 위장이약한사람은 속히의료(醫療)를 바드며 호렬자병자에게 접촉치아니하는 물론기타여러사람이 회집하는곳에는 가지안는것이 조흠니다 『회간』씨의 호렬자 예방주사법은예방상 원시뎍역성을 엇는고로 효력이잇슴니다 근일에는 감작호렬자(感作虎列拉)『왁진』 주사가만히 류행합니다

료법(療法)

병자를 편히뉘이고 복부(腹部)를 온란케하며 음식은죽(粥汁)등을 사용하며 구갈(口渴)이심한때에는 어름덩이(氷塊)등을 사용함이 조흠니다 본병이 발생될시는 의사의치료를바드심이 제일안전합니다(끗)

어린이교양에 필요한 법측
개성을검사하야 방침을결뎡하라

◇아동교육의세가지법측
一、잠시라도어린이에게대한관찰을방심하지말것
二、결단코부자연한일을어린이에게강권하지말것
三、생리뎍으로나심리뎍으로나적당한자극을잇지말것

◇개성에대한세가지주의
一、어린이의개성(個性)은만삼세부터 그곳을 발하기시작하야륙세가량되면그경향(傾向)이밝어지고 팔구세부터 십사오세가량은 동요를 니르키기비롯하며 십칠팔세부터는 성숙긔(成熟期)에드러가나니이때가 가장유혹에 싸지기쉽다하겟슴니다
二、그개성을따러 적당한 교양방법을사용할것
三、느저도학령에 달하는 즉시로 제일회의개성진찰을 하야그 경향(傾向)을 살필것이요 보통 삼사학년중에 데이회의진찰을행하야 그경과와 장래를 밝게하고학교를 졸업하는동시에 압일의지도를 게을리말것이올시다

◇유아상의네가지주의
一、어른들이 조금 귀치안타고어린이들의 심신발육에 필요하고 해가업는――즉 떼를드러말하자면 어른들의 하는일을 가리하려하거나 어른들의하는일을 흉내내는것을 막지말것
二、어린이들의 작란하는것은할수잇는대로 편의를 주고간섭을하지말것
三、어린이의 질문들을 밧는때는그아이의지능발달정도를따러아못조록속시 친확 간단하게 대답을하고 결단코 귀치안타는표시를하지말것
四、어린이들에게사용하는말은언케던지 주의하야 란잡히하지말고 교양상에 아름답지못한 동요나동화를 절대로금할것
五、어린이의자유를속박지말것 ―끗―

상의
이불을쓰고 자는것이해롭슴니까

【문】 커는 이십삼세된 청년이온데 벌서삼사년전부터 겨울이나녀름을 물론하고 잘적에 이불로 얼골을 가리지아니하면 잠이들지안슴니다 이것이 습관으로 그런지요 그런지 선두는병으로 그런지요 또한위생에는큰해가업는지 가르쳐주세요 (梁泰院里吳鍾善)

【답】 이불을 얼골까지 뒤집어쓰지아니하면 잠이 오지안는것은 습관이되어서 그런것이올시다 병적으로 그런것이아니나 위생에는매우 해롭슴니다 호흡할때는 동안에몸에서나오는 탄소가 나가지못하면 신선에서리고 나가지못하면 신선한공긔와 환긔가 되지못함으로 자는동안에는 언케든지조치못한공긔속에서호흡하게되는고로 해가되오니 지금부터는 극히주의하야 그습관을고치십시오(一記者)

童話 멸치의꿈(一)

넷날어느때 동해에 큰멸치한마리가 잇섯슴니다 멸치는 여러해를 묵엇든지 동해룡궁에서는 웬물고기들도 존대를하며 모든 물고기들도중배하고그의위엄을두려워하엿슴니다 그런데 어느날은 멸치가꿈을꾸엇는데 그꿈이하도 이상맹랑하야 여러날을두고 해득하려하엿스나 인해 깨닷지못하고병이될디경이엇는데 문득생각하니 서해에 망동이가 꿈을잘푼다는소문을 들엇든터이라 망동이를청하야 해몽을하여보리라하고 문방사우를다거노코일폭화전에다가간곡한사연을쓴후거를싸르기로우렁한 가재미를 불러 편지를 주며『이애 이편지를가지고서해에 가서망동공의도리고너도말삼을잘하야 아못조록 망동공을 모시고오너라』 하고분부하엿슴니다 이때에 가재미가 편지를바더가지고 간수한후 평풍자에수건매여 켜쳐쓰고 집신감발에 출단입하고 광문이에로자를 녀녀히 찬후세살부채에집행이를끌고느짓느짓거려온것이 어느듯서해에이르럿스니 고루거각이웅장하며 문안에는남녀종이며 구종 별배가분분이왕래하고사랑에는로소문객이 가득이안저잇는지라동해에서령리하다는가재미도주저주저하기를 마지안타가정신을 가다듬어가지고 쑥드려가서 사랑압헤이르러 고개를숙으리며『문안알외우……』하고 편지를 청직이에게 전하니 이때에 망동이가 서산밧긔에 해를마처 서초를피여물고 안석에기대여안젓다가 가저미의 드리는편지를바더 피봉을 떼고보니 그글에 하엿스되

『한번뵈온바는업스나 공의꿈해신일홈은 귀에저진지 이미 오래라 다만 인연이 업서 한자리에 모시지못함을 길이한하압다가 이에당돌함을 무릅쓰고 약소한주찬을갓초고 두어자글월로 감히 공을청하시고자하오니 허물치마시고 한번왕림하야 주시면 생의깃붐은 이르지말고 동해의 영광일가하나이다』

하엿거늘 망동이가 보기를다하고 입맛을쩍쩍다시며 혼자말로『이와가티 나를청하는데아모리 어려운사정이 잇슬지라도 아니갈수야 엇지잇나』하고가재미를 갓가히불러 동해의절이며 풍속을대강무른후 가겟다는것을허락하엿슴니다

멍텅구리 셔덕대기 {13} 양식마루

(一) 옥매의몰어주는말에 (二) 담배만 피우고누엇다가 (三) 몰여히 뛰여나가서 (四) 사람을불러다가 방바닥을뚫어

◇본사를견학한조선녀자하령회원일동 (이십육일오후네시에)

藝術敎育과 兒童劇의效果(五)
鄭寅燮

그이들은 한번 엇던想像力을指導해서 心魂이 그環境속에잇게되기 始作하면 그自體는 自働的으로 그世界와結合하고 엇던性格이 되엿슬때에는 表現의價値가생겨나며 理解와 새로운世上에서 靈肉에만흥勵動的리즘이이러나며 客觀的으로는 趣味와鑑賞의情緒가 發達하는同時에 主觀的으로는그表現의本能이發達되여 人生에게가장重要한 創造力은것을不知不識間에 完成化하게된다 우리들은 너무나 오래동안人生으로하여금物質的目的을達하는 爭鬪의漸續으로보앗스며所謂文明이라하는것이 發達되엿다는所産은 모다 兒童의適合性에서떠나 兒童은社會에서抱擁을밧지못한 放逐된運命에落淚하게되려한다 科學的考察即外面的、或은思考的活動만으로서는 完成된統一的人間性을期待할수업는그곳이기에 反面으로는 그러한缺乏을充滿식히며 兒童으로하여금 人間性의無垢를爲하야 兒童을爲한 文化的施設이增加되어야하며 藝術敎育의樣式이高唱되는理由도 여긔存在할것은勿論明白한일이지마는 其中에도 兒童劇이라는部門에드러가서 처음으로體驗的綜合行動이 部分에서全體로接近하여질것이다 拘束업고 自由로우며 廣汎하고純眞하고 그들의活動性을沒却치말고 그런世界를 더욱더美化하며 醇化하며 眞化하는데 兒童敎育의根本精神이잇서야겟고 特히 魂 精神 想像方面은 戲曲的性格을 創造的으로指導해서 兒童으로하여금 人生의巨大한貯水池에 水泳케하여야할것이다 다시말하면 敎育의方法에드러가서 能動的注入을 主要視하는것보담 啓發의能動的樣式을取하여야할것이니 兒童의天性인自動性과 그戲曲的模倣性의本能을 重大視하야 自己表現과 自己訓練을 主觀으로하야 偉大한創造的技能을가진 無垢할수잇는 人間味를흥벗가진 그런사람을鍛冶하여야할것이다

模倣本能에依한 兒童劇이란것이 엇던效果를가젓느냐하는問題는 論者의主見이다르면또한그論旨도 差別이잇슬것이다 그러나大槪그眞味에는바骨格은엇던一致點이잇서야할것이다 甲乙을勿論하고 近代의兒童心理硏究가進步됨을따라 兒童劇이란것이 藝術이란그獨自性의價値는 爲先論外로해두고라도그것이敎育의一部로서 論評될때에는兒童心性의敎養發達에 不可缺할重大한地位를占하엿다 劇이아닌 大人의劇은 俳優다는藝術家의힘으로 實演되는것이요 自己의情操를爲하야 그敎養發展을目的하고 實利한다고하기에는 너무나 功利的分子가만히석겨잇다고 아니할수가업다 換言하면 自己自身의感興을爲한 動作이라기보담觀客을爲한다든가 或은營利的背景을가젓다든가 그러한意味에잇서서程度의差異는잇다할지라도 兒童劇은 本質的으로演出者自身을爲함이만흥니 이것이 兒童劇의 貴重한點이라볼수잇다

最近朝鮮映畵界(二)
‖興行界 製作界‖
李龜永

듯는바에依하면 京城안各日鮮人劇場의 經濟狀態는二三館을除外하고는 全혀經營難에싸저잇다합니다 또한收支狀態는여간慘酷하지안타합니다 업친데덥친데로또새로히每『푸로그람』 八十圓以上乃至一百圓이면 費用이增加되지안음의 各劇場形便은말할것도업슴니다 그런데只今에와서 當局者는各館에各劇場의情勢를調査中에잇스며 形便에따라 料金을幾分間減下할意向이라하니 日可日否는엇지되엿던 조흔편으로解決되기나希望합니다

이問題로因하야各興行者對寫眞供給者或은各配給이會社사에도 적지안은알력이생긴事實이또한아잇슴니다 그것은다돈것이아닙니다 이檢閱費用은누가내겟느냐?하는問題를當然히會社側에서는 [illegible] 이것은映畵會社에서支出할것이아니다우리는이미內務省에서檢閱料를내인것이니다시朝鮮에서낸다는것은二重課稅가아니냐? 이것은總督府가無理다그리고何如間이것을會社에서負擔한다면무엇으로던지寫眞料金中에서이것을우리는除할것이다』 이와가튼威脅에갓가운발을興行者에게한事實까지도잇다합니다 그러라고이것이純全히興行者側에서만負擔한다는것은無理라하야 이리하야問題는여러차례거듭되엿다가結局은 會社側은全혀相關치안엇고 大槪는個人的으로自己利益中에서全額의半分式을負擔하기로된모양갓슴니다 그런데말입니다 日本의內外各映畵會社는檢閱料金問題에對하야는全部가傍觀的態度를取하고잇슴에는 直接利害가밋칠것을 두려워한모양임니다 엇지되엿던直接으로 이問題에相關하기를避하얏다는것은全혀責任回避라아니할수업슴니다 이에對하야 日本映畵言論機關도역시그經過를간단히記載하엿슬뿐이요全體로는傍觀的이엿슴니다 그中에오죽興行新聞이이問題를들어各映畵會社의傍觀的態度를非難하엿스며 結局은間接으로도 이影響은各會社에밋칠것이며 밋처지안는다하더라도 同業으로서는最善의努力을다하야 解決策을講究하는同時에絕對의後援이必要하다는社說을記載하엿슴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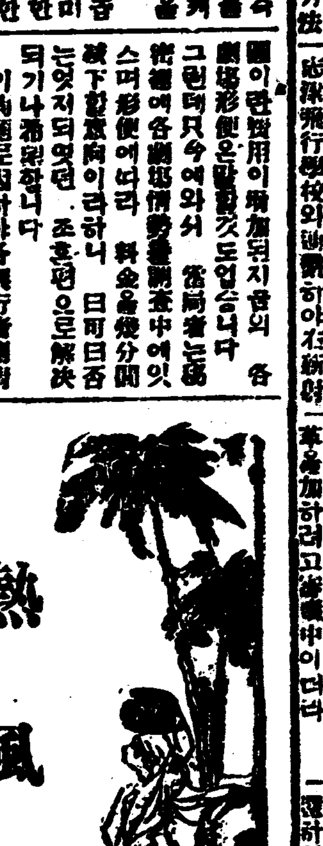
『아니야요『야시아이』씨!』 [illegible] 신더러 버리하라하고 나혼자놀고먹는다는것이 말이되나요?……일을해도 가티하고 노라도가티노라야하지요 나도버리야하겟서요……』 하고『안녀!』는 그것을 거절하엿다

『당신의 그친절한말슴은 고맙긴고맙지만……』 하고『안녀!』는 말꿋을매저다 두사람은 그러나 벌서어느때까지든지 이러한생활을하고잇슬수업슴을 잘짐작하는터이엇다 [illegible] 입으로 엇잿든 서로버리할곳을 차즈랴고 작뎡한것이엇다 『안녀!』는 바로 이로부터 신문광고를 낸집으로 가보겟다고말하엿다

『그러실게 무엇이야요『안녀!』씨! 오늘은 죽은 두사람이 시야이는 속에서 우리나는소리로 이러케 말하엿다

『아이구!그러케 될는지도알수업지요 두사람이 언제까지던지 이머로잇슬수는업겟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둘이죽은사람압해서 이약이나 실컷해보지요……』 하고『안녀!』도 실음업시말하엿다 그리고 두사람의사진보든눈을 옴기어 참문잇는편을 바라보앗다 『야시야이』씨! 혁명가란것 처럼고적한것은 또다시 업겟지요……』 그는이러케말하고 행길로지나다니는사람들을 바라보앗다 『커봐요 그러치안해요?『야시야이』씨!『코쿠라』와 『사치야』는 그와가티 인도민족을위해서 희생이되여 죽어바리지안햇서요 그러치 그때에는 잠간동안 신문지상으로 무라고써들엇슬뿐이오 지금에와서는 인도사람으로서 그러힐 을 긔억하는사람이 적겟지요!』 하고한층더 우울한빗을띄어가지고 『그러치요?『야시야이』씨!』 오날은 이속주라도조금 먹어보지안흘서요……』 이러케 말하고 그는한숨을내쉬엇다

熱風 (一九八)
中西伊之助作 李益相譯 盧心汕畫



『안녀!』씨! 조금도 걱정할것업서요 내가혼자 버리하면 당신한사람쯤이야 엇더케하던지 진지를 자시도록할터이니까……』 『야시야이』는 이러케 말하엿다 그는 자긔가 버리만하면돈이얼마던지 생길수잇다는직업소개소주인의말을 단단히미덧든것이엇다 물론 버리한다는 그직업이무엇인지도 도모지몰랏섯다 시골에서 뛰어나온그는 다만 상대자의하는말을 덥허노코 미들뿐이엇다

의일이나 이야기해가며 지내지요 그러케하는것이 조치안해요?』 하고『야시야이』는『안녀!』를만류하엿다 『당신이나가시면 나혼자심심하고 그리고 오늘에 바로쌀갑이업서서 먹을수업는것이 아니냐 그대로 계서요『안녀!』씨! 오늘 하루할에잇서보아요 그리고 죽은사람의 압헤서평상시와가티 밥이나 먹어보지요 우리가 서로버리를 하게된다면 이러케 가티항상잇슬……

◆天氣豫報 晝一時 晴
◇溫度 廿七日 正午 八二、九
比較 廿六日 最高 八八、九
◇日出前五時五九 晝間二時一一
◇日入後七時一○ 夜間一時四九

秘傳 興陽丸
一劑十圓送料三十錢(料先金)
主治
神經衰弱 腎氣不足 男子不伏 婦人冷 消化不良 先天不足 陰虛 陽不俱 氣虛 早漏 遺精 下焦冷 口味不甘 冷精不足
이약처약쓰다가효력이업거던이약을한번써보시요과연효력이엇더한가?
京城昭格洞一四九 大德藥院

◉신긔한약
지리한장마와심한더위로모든인생의몸이허약하여저서긔운을차릴수업스며밥맛이업던중설상가상으로생냉바람은산뜻산뜻불어와서각디에전염병이류행한다생명을희생한다하는두려운소문을날마다듯는바만일몸을주의치안으면,즉몸을든든케안하면위괴일발에싸질것은사실이징명하는바다시간단이말하자면몸을조심하며약을먹어야만할터이며약효력이제일조흔써임으로다음의약을사해케씨에소개하여드리는바신톄의근강을희망하시는이는아레와가튼병징이하나라도잇거던조금도주저치마시고곳복용하시오
定價 一劑 貳拾日分 貳圓八十錢 半劑 拾日分 壹圓五十錢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百八番地
主 全義桓 仁義堂大藥房 振替口座七七五六番

淋疾祛根丸
此淋疾祛根丸은男女勿論하고百發百中하는効能이有하온대其効能은淋疾消渴、膀胱炎、尿道炎冷淋、色淋、虛淋、沙淋、血淋、梅毒淋、淋疾、急慢性淋等에하오며永久한淋疾이라도此藥壹劑만服用하시면特効가有하오니試用하시오

專門大家醫學士宮田先生發見
速되는治 淋疾專治藥
藥名 네오지고린(ネオヂゴリン)
本劑는專門大家인醫學士 宮田先生이帝國大學病院에서多數의患者에게實驗한結果로新發明한良藥입으로急性慢性의頑固한淋疾에가장速効가잇는特効藥인故로如何히頑固한慢性症이라도二個月假量만服用하면반드시滿足한効果를엇게되며、服藥後三十分後에는藥効로尿色의變化가잇슴을아라本劑은다른服用가튼것임으로此藥을淋水又는白濁에下服用하는대至極히생키기조흔藥이며또한胃腸이나腎臟에害는絕對로無함
◎注意(服用法、用量、食養生其他衛生法等은製品에詳細記載하엿스오니一覽後服用함을肝要함)
◎淋疾의容體 尿道(腎頭)小便出處가간질간질가려워서나오고小便이자조나오며或은잘나오지안는사람、陰部가突然히氣分이조치못한사람、頭痛逆上、眼邊이개산치려하야지는불은곳本劑를服用하야根治케함을肝要
◎藥價 五十粒入金貳圓、百五十粒入金五圓、三百五十粒入金拾圓
●本劑는一日三回一二粒乃至三粒式服用함을要함
大日本總發賣元
柴崎仁壽堂大藥房
朝鮮支店 京城府黃金町一丁目大通 電本一六六○番 振替京城一四二五八番
東京本店 東京市本鄕區眞砂町電車通
大阪支店 大阪市東區本町一丁目電車通
滿洲支店 大連市岩代町大通
附屬醫院 本店支店共附屬診察所를設備하야何人에게든지診察과治療를하는故로患者는來店하시오

八月二十七日부터新寫眞提供
實寫 폭스時報 全一卷
米國파테會社特作 하로루도·로이도氏主演 大笑劇 大人氣로이도 全六卷
米國윌리암폭스會社特作品 名優박크·존스氏大力演 西部大活劇 荒馬宇宙 롤박차고 全七卷
米國윌리암폭스會社大特作品 名優오—비、켈三월氏主演 大活劇 暗夜의信號 全七卷
特別大割引 午後七時半開演
階上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歐洲影畵封切場 優美館 電光三九五番

萬人期待中에藝術映畵公開 (八月二十六日부터)
◆윌리암폭스超特作天然色映畵 古典神話 뷔너스의宮殿 全八卷
千古不滅의大藝術映畵로폭스社가世界에자랑하는名篇!男女老幼업시다한번식보아두실가치잇는영화입니다
◆大윌리암폭스特作純情哀話 抒情小曲 리알호스의一夜 全六卷
메이아리손孃主演 토마스썩구氏의小品集아리호스의一夜에서取材脚色한抒情小曲
◆大윌리암폭스作品 鄕土劇 無言의證據 全五卷
눈물잇고사랑잇고活劇잇는자미잇는映畵입니다
◆폭스獨特센쉬大喜劇 珍無類妙 엉터리劇團 全二卷
‖急告不日公開豫定‖
蝴蝶의歸巢 孔雀의날개 全九卷
自由車喜活劇 加州를向하야 全九卷
大雄篇 아이안호오스 全十二卷
大悲曲 겨울이오면 全十卷
폭스映畵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日運送合同至難
東京商議停調乎

(東京電) 小運送合同問題는 鐵道省當局의 意思合致가 全然不能케되야 鐵道省과 此兩者의 態度가 相異하고 一方當業者間의 紛爭運動은 依然猛烈을 極하야 合同은 在荐運延되고 또 前途에 圓滿한 解決의 障碍될만한 複雜한 事件이 續出하는 中임으로 東京商業會議所는 斯界를 當하야 運送問題이라하야 二十六日에 其善後策에 關하야 委員會를 開하얏는바 此는 縱橫兩派와 鐵道省과의 三者鼎立의 紛糾에 停調를 試코자하는 前提라고 一部에서는 觀測하더라

小運送業 免許制說擡頭
近近研究着手?

朝鮮의 小運送은 日本과 如히 業界의 大合同을 速히 實現할 可望은 至難할것이나 少하야도 現狀대로 放置를 許치 안홀것만은 一般으로 認하는바이다 現在 朝鮮에서 此取締法規를 多少有하기는 全羅北道만으로 領事館時代의 理事廳에서는 諸營業取締法規의 一部로 運送業取締의 條項이 잇섯스나 今日에는 廢止되야버리고 全然的으로는 取締할 何等의 法規도 總督府에는 屆出의 際에 警察署에서 資產信用의 程度에 關하야 濫設의 弊를 矯正키 爲하야 多少嚴重히 取締하든 事도 잇섯스나 一方警察取締를 밧는 營業의 性質로 보면 他人의 財產을 全責任으로써 寄託되는 點에 잇서 質屋과 何等相異한바 업는데 不拘하고 彼此取締의 緩嚴에 格側한 相違가 잇는것은 不可한것이라 하겟고 不正業者의 營業의 弊害를 認하는 以上此取締는 總督府도 또 一定한 法令에 此를 防止하는 實務가 잇슬것이라하는바오 그리하야 免許制가 될 境遇에 鐵道局當局으로서의 運送은 鐵道가 監督하고 其以外의 小運送은 警察에서 取締하야 公正을 期하는것이 得當한 施設이 아닐가 하는것이 關係當局並當業者의 一部에서 論議되는 中인데 此問題에 關하야는 近近鐵道當局兩當局間에서 具體的研究에 着手할 形勢이라더라

金融組合의 交換加入
京城에 先例多

京城組合銀行對都市金融組合間에는 早晩預金利下協定이 進行되겟고 同時에 金融組合은 手形交換加入을 希望하게되겟는데 京城에서는 左와 如히 既히 一時加入되엿든 事도 잇섯다

大正八年十二月一日 殖銀의 代理交換으로 鍾路、光化門、倭城의 三組合加入

大正九年七月一日 殖銀의 申出로 事情에 依하야 鍾路組合脫退

大正十一年七月三十一日 同上 光化門、倭城、組合脫退

何故로 金融組合이 脫退하얏는지는 不明하나 當時 此等의 金融組合은 戰後의 財界反動으로 殆히 破滅에 瀕하얏슴으로 組合自體又는 殖銀이 危險을 暴露케될을 두려워하야 脫退한것으로 推察하겟고 上記의 事情으로 再加入은 果然如何할지 疑問이나 大體는 預金協定과 同時에 成立되겟더라

名實不副의 總督府產米實績
數字上으로보아 感心不能 水利組合効果도 疑問

總督府當局의 產業方針은 恒常一種의 矛盾과 缺陷이 잇는데 批難의 聲이 返復되는바이나 더욱 土地改良事業產米增殖에 伴하는 農耕法의 改良施設에서 農務當局과 土地改良課와의 連絡이 缺如한 結果자못 不良한 情況을 呈하는 中인 事는 更히 關係方面에서 攻擊의 焦點이 되얏고 從하야 今回의 產米增殖과 如함도 總督府當局의 宣傳하는것처럼 一般은 期待를 有치 안는 貌樣이다 即

總督府가 既往十年來 土地改良과 農耕法改良獎勵에 年年消費하는 經費는 約千萬圓에 近한 巨額에 達하얏슴에 不拘하고 土地改良에 依한 水利組合의 完成된것이 六十餘個에 取支가 可能한 組合을 存立할수 잇는것이 約十組合이오 多少의 效果를 收하는 中인것이 僅僅三四組合에 不過하는 狀態로 水利組合에 效果가 漸次疑問되는과 共히 如斯히 莫大한 國費를 投하면서 產米의 增收가 既往十年間에 거의 可觀할만한 增收가 업고 依然히 千四百萬石臺를 上下하고 잇는것은 假使多少의 猶豫期間이 잇다할지라도 或은 이에 何等의 缺陷과 不徹底가 잇슴으로 因함이 아닌가하는 批難의 聲이 잇는바 今에 既往十個年間의 作付反別과 收穫高를 比較하면 如左하더라

年別	作付反別(千町)	收穫高(千石)
五年	一、五一八	一三、九三三
六年	一、五二八	一三、六八七
七年	一、五四八	一五、二九四
八年	一、五三七	一二、七〇八
九年	一、五五五	一四、八八二
十年	一、五三一	一四、三二四
十一年	一、五三七	一五、〇一四
十二年	一、五四〇	一五、一七四
十三年	一、五五五	一五、二一九
十四年	一、五六五	一四、七七三

棉業共進會協議

來十月全羅南道에 開催될 棉業共…

有價證券 取得에 課稅?

(東京電) 第二次稅制整理中 有價證券의 取得에 際하야 或程度의 課稅를 行할 模樣인데 其程度如何에 依하야는 二重課稅가 될것임으로 자못 注目된다더라

蠶業試驗所에 繭絲係設置

現在水原蠶業試驗所는 蠶種의 製造檢查機關에 不過하고 繭及生絲에 關한 試驗機關이 업슴으로 幾多의 桑及蠶의 試驗調查로 完全치 못하고 又精確한 繭의 査定及標準이 업슴으로 繭販賣上의 爭議를 解決하는데 不便을 生할 뿐아니라 近時產繭額激增에 伴하야 朝鮮內의 消化機關即製絲家의 勃興을 見코자함에 不拘하고 適當한 敎婦를 得하기 不能함으로 相當한 企業家로하야 進達케하는 傾向이 잇슴으로 此等의 欠陷을 補키 爲하야 大正十六、七年兩年度에 亘하야 現在의 蠶業試驗所에 繭絲係를 新設하고 十六年度에는 係先技師一名技手及雇各一名及試驗費等을 合하야 十三萬五千七十八圓의 豫算을 計上하고 十七年度에는 技手一名及試驗費를 合하야 千六百九十三圓의 豫算을 計劃을 樹立하얏는데 本件實施의 際에는 來年度부터 生絲其他賣上代金에 依하야 年收入四萬圓을 得할 豫想이라더라

海運界樂觀

吉村朝鮮郵船事務[談] 朝鮮海運界에 對하야 生命이 되는것은 朝鮮米의 移出인바 이것도 本上半期의 事로써 一段落이 되엿는바 例年本期의 海運界는 不振狀態에 推移함이 普通인데 本期의 只今까지의 成績과 前年同期와 比較하면 前年同期에는 豫定보다 千三萬餘圓의 收入減이엇스나 本年에는 豫定보다 十六萬圓의 增收를 示하야 結局二十九萬圓이 前年보다 增加를 示하고 更히 前期보다 二三萬圓의 增收로 日本海運界不況圈外를 脫하야 相當한 成績을 見할터이다 船荷의 主要한 者를 移入品으로는 日用雜貨를 第一로하고 洋灰等도 比較的多數量에 達하야 이대로 進行되면 本期八朱配當은 充分可能이깃다 云云

金融調查會中心問題인
朝鮮銀行券의 沿革

朝鮮金融經濟調查會는 目下銀行券의 日鮮統一의 可否에 就하야 詳細히 調查中인데 朝鮮銀行券의 前身인 第一銀行券發行當時의 事情은 大體如左하다

韓國市場에서는 日本의 一圓銀貨及日銀券이 오래 流用되엿스나 北淸事件時에 모다 流出되고 日銀券도 漸次回收되야 明治三十四年頃에는 淸商의 錢票, 日商의 韓錢預手形, 官鑄, 私鑄의 白銅貨가 市場에 橫溢하야 去來의 危險을 呈케되얏든바 此를 防止한다는 意味는 明治三十四年十月에 此等錢票, 韓錢手形을 引上하라고 第一銀行在韓支店擔의 一銀券을 發行하야 三十五年五月에 種類를 十圓、五圓、一圓의 三種으로 하얏는데 當時發行高에 制限은 업섯스나 最初의 製造高는 三種을 合하야 百三十萬圓이엿스며 三十六年發行高를 五百萬圓限度로 限外發行의 境遇는 政府의 認可를 受키로하야 日本通貨及有價證券으로써 同額의 引換準備를 嚴하게 되얏는데 三十七年末의 發行高는 三百三十七萬圓, 四十二年十一月韓國銀行引繼의 際의 發行高는 一千百八十萬圓이엿더라

保證發行額 處置는 如何
銀行券의 日鮮統一은 時期問題인

데 參考키 爲하야 明治四十二年六月韓國中央銀行과 第一銀行間에 交換된 覺書의 要點을 示하면 如左하다

一、第一銀行은 無償으로 正貨準備를 韓國銀行에 引渡함

一、保證準備發行額에 就하야는 一銀은 二十個年年賦로 償還할

一、一銀은 營業上一切의 權利義務를 韓國銀行에 引繼하되 回收不確實한것은 一銀이 保證함

同年十一月二十日에 引繼된 一銀發行高一千百八十三萬圓中 其三分二인 七百八十八萬圓은 無利息二十個年賦로 一銀은 償還하얏다 이로서 보면 經濟事情에 相違는 잇스나 鮮銀券을 日銀에 引繼할 境遇에도 保證發行額은 年賦償還할外에 업스리라더라

興業會社困惱
敷設免許作消?

會寧으로부터 金洞에 至하는 四十六哩五分間의 線路敷設을 企圖한 北鮮興業會社(公稱資本金一千萬圓代表者笠井愛次郞)는 大正九年二月에 敷設免許를 得한 爾來 設立에 就하야 奔走中이엇스나 一般財界不況으로 資金調達難에 陷하야 再三工事着手期日延長의 申請을하고 既히 十五年二月廿六日이 最後의 着工期이엇스나 何等의 施工準備가 업슴은 勿論會社設立의 曙光을 觀치 못하겟슴으로 當局에서는 目下善後策에 就하야 審議中인바 結局失效하게될 模樣이라더라

米移出激增
短境期까지는 五百四十萬石

昨年의 稻作은 前年에 比하야 豐作이엇든 事와 滿洲粟의 輸入增加로 米의 移出이 增加되야 八月中旬 四百九十七萬石에 達하얏는바 前年同期에 比하야 七十七萬石의 增加를 示하얏는바 十月의 端境期까지에는 五百四十萬石을 突破할 形勢이더라

日本稻作
幾分良好

(東京二十七日) 十五年度水稻作況은 二十七日午後三時農林省에서 發表키로 되얏는데 本年의 稻作은 苗代와 移植時期의 水不足及七月頃까지 氣溫이 大槪低하얏슴으로 苗의 成育及移植이 多少遲延되얏스나 其後日照多하고 氣溫이 高하얏슴으로 成育이 順調로 進하고 病虫害도 大槪少하얏슴으로 八月十五日現在作況은 全國으로보아 十四年의 作況과 事情이 酷似하고 幾分良好한바 잇서 相當한 興味로써 注目되는데 普通以下가 되는 事는 업스리라더라

朝鮮水電의 鋼索鐵道建設

咸南新興으로부터 道安里에 至하는 朝鮮水電專用鐵道는 目下工事中인데 그中松興里檢鉗間(三哩三分)에는 赴戰嶺이 잇서 同區間의 地勢가 急峻으로 兩者의 高低의 差가 三千呎에 達하야 普通鐵道로는 連絡至難임으로 總工費四十四萬圓을 投하야 鋼索鐵道를 敷設코자 認可申請中이라는데 其內容을 見하면 急勾配(電力捲揚區間)中 二哩五分을 捲揚하고 緩勾配인 二哩五分間「사이진쭈」以上을 三本軌車十十餘鎖間에는 人力手押으로하야 一日의 輸送能力百八十噸을 有케할 計劃으로 朝鮮으로서는 鋼索鐵道敷設의 嚆矢이라더라

外米殺到
軟弱商狀

外米의 輸入도 一段落을 告하얏는데 八月下旬에 龍神丸甲南丸의 關貢積 仁川埠頭四萬三千袋(三萬石)의 一時入津을 見하얏슴으로 在庫過剩의 外米는 產地미돈、關貢의 强硬상에 不拘하고 一時的의 現象이라할지라도 軟弱氣味를 呈하얏는데 目先으로 次次需要期에 向하는것과 秋物의 端境에 在한 關係上軟化는 업스리라고 觀測되더라

肥料取締令과 檢查機關設置

來年度부터 施行될 販賣肥料取締規則에 伴하야 檢查機關으로 總督府에 監督官一名、補助官屬一名 技手一名을 置하고 勸業模範場에 分析機關을 設置할터인바 檢查取締를 行할 範圍는 左와 如하더라

一、肥料高의 檢查

一、開港場의 檢查

一、製造場의 檢查

輸入移入製造販賣의 全部에 亘하야 不正肥料의 取締를 行한다더라

期米 廿七日

仁川期米

止價比較表

	前日後止	今後止	比較
當限	三五、四〇	—	—
中限	—	—	—
先限	三三、七九	三三、六六	一三低

前場崩落

昨後場阪地三十六圓九十錢止와 共히 三十三圓七十九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六圓七十九錢인 又復十一丁反落을 據하고 三十三圓六十錢인 十九丁低로 場을 始한바 場面은 益益惡化하야 阪地八十錢臺를 支撐치 안흘 不拘하고 三十六錢까지 瓦落하더니 阪地六節九十七錢의 突高와 相埃하야 五十九錢으로 奔馳한後 結局阪地九十九錢으로 九十六錢에 止場하야 當을 作하고 五十一錢에 場을 止하니 高低의 差는 二十三丁이며 阪仁의 鞘는 三百四十三丁이더라

賣方用武無地

一段反撥을 告하지 안코면 强保合으로 月末의 終幕을 下할 듯하든 商勢는 俄然惡化하야 三圓三十錢臺의 新低價를 演出하엿다 勿論 上順氣로보아서는 買方針을 取하지 안을수업스나 그러나 旣히 買用를 되一時慘落을 告한 後임으로 賣方도 觀望의 態度로 잇섯스며 反面의 賣方도 또한 何等의 新材料가 無함과 共히 突進賣을 始하지 못하고 眺或…落을 演한바 되엿다 要컨대 大勢趨移의 如何는 歡派의 既定한바임으로 更히 提言하려 하지 아니하나 此邊에서 繼續瓦落을 示할지 又는 어느 程度까지 反騰할 後에 低落의 趨勢를 呈할지 即此가 問題인데 現下月末에 入하야 再度瓦落함을 보면 天災地變의 大慘害를 見하기 前에는 到底히 昂騰할 餘力이 無할 뜻하며 從하야 來月新甫의 百數十丁의 下鞘를 豫想하면 賣方의 用武할 場所는 더욱더욱 狹少하리라고 云云

米豆餘話

▲昨夜의 强風雨는 稻作의 被害가 不少함으로 잇섯스나 天候俄然恢復되야 그다지 損害업는것만 僥倖▲歡派는 一時的의 恐怖心이업지아니하엿지마는 今朝에 至하야는 도리혀 硬派의 不安을 招致하엿다▲昨後場에 歡嗣히 場을 止한 當市場은 阪地의 形勢如何를 不拘하고 先鞭的 行動을 加하니 困의 威力이라 할가?▲同時에 阪仁의 鞘는 三百四十餘丁으로 又復擴大하엿스니 必竟은 그만 헌허름 이 업시 아니할러이지▲그러나 月終議이 臨迫하는 期近의 依然引締함을 보면 果然無難하다고는 할수업슬것이다▲連만 아니라 前例에 依하야 新甫가 百五十丁의 下鞘로 發會된다 假定하면 더욱 賣餘地가 薄弱할 貌樣

順氣와 賣人氣

今後三大厄日의 經過如何는 未來의 일임으로 神經過敏의 行動을 할 수 밧스나 現在의 順氣로 보아서는 누구나 할것업시 買進에는 練忌가 업지 아니한 貌樣이다 果然阪地市場으로 보면 三木筋의 賣越과 傍觀的 態度로잇든 吉村筋의 賣出動 又는 硬將潮先筋의 先限非買說을 戰하는 同時에 局勢도 俄然一段崩落을 告하엿고 當地市場은 買方⑦는 傍觀으로 賣方⑰筋은 乘勝長驅의 威力을 加하야 또한 歡優勢를 維持하는바 此實際事情에 잇서서는 到底히 買進한다고 謂키 難하다고 그러면 突込的 賣方針을 取하는것이 可함뜻하나 此亦注目치 안을수 업는 것은 今後天災의 危險을 廻避할 연아니라 月終에 入한 此際에 賣埋할 餘地가 薄弱하다고 云云

前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三五、四〇	三五、三五	三三、六〇
二節	三五、三八	三五、四〇	三三、四二
三節	三五、二八	三五、三二	三三、三六
四節	三五、二八	三五、四〇	三三、四〇
五節	三五、二二	三五、二二	三三、三九
六節	三五、二八	—	三三、四三
七節	—	—	三三、四二
八節	—	三五、四〇	三三、四〇
九節	三五、四〇	三五、四〇	三三、四〇
十節	三五、四〇	—	三三、五一

後場反騰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三五、三二	三三、四〇
二節	—	三五、三二	三三、五二
三節	—	三五、四二	三三、五九
四節	—	三五、四〇	三三、六八

仁川正米瓦落

⑤丙⑦玄米三等	三四、九〇	
同 四等	三四、四〇	
無檢查米	三三、三〇	
一等精白米	四〇、—	
在來正租	一〇六厘	
改良正租	一〇八厘	

	當限	中限	先限
出來高	八八〇〇	九九、〇〇	一二〇〇〇
取組高	二二〇〇	八〇〇〇	八〇〇〇
賣入値	(三五、五一)	(三五、四一)	(三三、五〇)
合計	九〇八〇〇石		
累計	五九五八四〇〇石		

各限保合

	中限	前場
▲賣方 ⑰	一〇〇	⑦ 一〇〇 ⑰ 六〇〇
▲買方 ⑬	二〇〇〇	⑩ 三〇〇〇 ⑦〇 二〇〇〇
▲賣方 九	二〇〇	⑬ 二〇〇〇 ● 二〇〇
▲賣方	五〇〇	○ 二五〇〇
▲買方 ⑯	二〇〇〇	⑩ 一〇〇〇 ⑫ 二〇〇
⑰	五〇〇	⑬ 五〇〇〇 ⑰ 一〇〇〇

大阪期米

前場	當	中	止	當	中
一節	三六、七八	四〇、一四	六節	三六、四〇	三九、五七
二節	三六、七九	四〇、二八	七節	三六、九七	三九、八七
三節	三六、九二	四〇、二五	八節	三六、九九	三九、八六
四節	三六、七六	四〇、一六	九節	三六、九六	三九、九六
五節	三六、八一	四〇、〇六	十節	三六、九六	三九、九六

後場	當	中	止	當	中
一節	三六、七〇	三九、八〇	四節	三七、〇二	三九、八二
二節	三七、〇〇	三九、八〇	五節	三七、〇二	四〇、〇六
三節	三七、〇二	三九、九五	六節	三七、〇八	三九、八八

大阪氣配 三十七圓五十四錢

各地期米

	前場	後場
東京	三七、〇二	三七、〇三
兵庫	三六、七九	三六、八三
下關	三六、九九	三六、九九
桑名	三六、二二	三六、四二

株式

京取市場 廿七日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寄	大引	後寄	大引
京取	一五二〇	一五三〇	一五三〇	一五二〇
鐘新	一五二〇	一五二〇	一五二〇	一五二〇
大新	一〇三〇	一〇三〇	—	一〇三〇

	出來	高
京取	一〇高	
鐘新		六〇高
大新	一〇低	

前場伸惱

諸株一齊伸惱

今朝는 大阪寄付一齊小高이엇스나 伸惱에 當所도 人氣는 比較的冷靜하야 賣買依然不振으로 傍觀이엇스니 大新은 百二圓六十錢寄付엇스며 鐘新은 百五十一圓七十錢寄付後 二圓丁으로 稍高이고 大引도 二圓丁이엇스며 京取는 寄不申後 二十九圓五十錢으로 小高이고 二十錢으로 更強하야 二十錢大引의 小幅高下이엇더라

急反撥은 難期

前日大新의 新低價百一圓六十錢에 比하면 今朝阪付百三圓丁은 一圓四十錢의 反戾이나 二圓九十錢四本同事로 伸惱를 呈하얏슴으로 低價가 아즉도 남어 잇슴을 推測케도 하얏는데 大新히 他株의 昂騰時 不昂하고 頑强時 獨低相場을 演하며 低落時率先大幅低落을 演하는 無力한 主因은 出來高不振과 島氏 關係等으로 新規買氣不起에 因함이라 하겟는바 昨日外지의 獨落으로오래동안 維持를 가지고는 決코 盡値相當히 處分되엇다 하나 投物이 出盡하고 歡派의 追擊으로 至急反撥은 업슬 것 만 東新과의 値鞘比較觀으로 百圓臺가 維持될만가지 하고 決코 賣할 수 업스며 金融其他周圍事情으로 보아 아즉 買方에게 有利케할 時機가 아닌을 思하 ... 이 만 흔 듯

京取九圓支持

京取는 强弱共히 自信잇는 商內가 업시 大新如何에 追從할 뿐인대 證準인 大新이 容易히 活氣가 잇는 相場을 演出케 될것지 아니하야 大新軟調持續이 京取도 無難히 九圓臺斷일것이다 果然八圓臺가 示現된다면 豫想대로 買物이 續出할가가 問題이라겟스나 大體에 잇서 深押은 업슬것갓더라

鐘新惡目買?

今朝는 米棉低로 鐘紡도 低落이나 依然히 二百四十二圓臺保持의 强이오 鐘紡는 또 四分 一反落의 四十八弗臺로 好感으로 大阪鐘新이 百五十三圓의 高價外지 잇섯든 바 米棉減收外지 豫想되엇든 關係上綿絲强調를 推測하는 實物이 相當하야 大阪市場에서 惡目을 買코저하는 人氣인 듯하며 當所도 닉寂寞은 一般이 思하며 鐘新先高相場이 잇슬것 外지 信하는 者잇셧더라

整理依然不捗

新價에서 新價로 新落되는 大新의 當所買方은 依然히 投捗하야 整理가 조금도 進捗되지 못하고 反히 百圓臺斷이 업슬것을 豫測하는 便까지 잇서 上鞘買이 되더니 오買方도 利喰急의 態度를 取하얏던 이나 前日後場에는 新低價에 惡材지 買케되여 幾分人氣가 變한 듯하야 今朝는 大阪百三圓丁을 보고는 寧히 戾買氣分이 잇서 下鞘를 呈하고 二圓臺에서 微動일 뿐이엇더라

前場諸株步調

▲京取	一九五〇	一二〇	一三〇	一二〇	
▲鐘新	一五三一七	一五〇〇	一五〇〇		
▲大新	一〇三〇	一〇二〇	一〇二〇	一〇一〇	

後場諸株步調

▲京取	一九三〇	一二〇	
▲鐘新	一五三一〇		
▲大新	一〇三五		

前場賣買關係

(買)新田定岡市川 (賣)新田白樂市川▲大新三二〇 (賣)白井一五〇新出一五〇田道

後場閑散

	保	價	
京取			
鐘新			一〇高
大新	一〇低		

(賣)大林八〇白井成濟新田定岡五〇田道六〇市川五〇▲鐘新二三〇(賣)定岡五〇成濟一二〇新田田濟南市川(買)新田一四〇金秀南五〇白樂

不氣乘大閑散

後場는 大阪鐘新不變에 當所는 至然不氣乘으로 京取寄付二十九圓二十錢一本이 잇슬뿐으로 見送하야 鐘新이 百五十二圓三十錢 一本이 잇고 大新은 大引百二圓十錢이 잇고 다가 引際에 二商이 共無의 休商同様商狀을 呈하야 閑散의 觀이 잇섯더라

主要株取組

京取 ▲賣方大林二十洪九十正峰四百金龍二百田中三十新田千四百三十定岡十南千四百買方有田九十白井百五十洪百七十金龍二百五十古川二百十田中二百三十成濟五十新田百定岡十田道二千八百二十金秀四十南百五十白樂七十市川二百二十

大新 ▲賣方洪三十田中三百六十新田二百六十南千五十▲百十正峰十大林百九十白井二百田中千九十成濟百三十古川六百定岡五十田道千四百二十新田二六十白樂三百十市川五百十

鐘新 ▲賣方大林十白井三十正峰百二十新田百五十南九十▲買方有田十古川五十田中百九十成濟十新田三十田道二百八十白樂十市川三十

取組代引算定日步

株名	取組	代引	算定	日步
京取	四九〇〇	九〇〇	九一〇	二
鐘新	六七〇	三一〇	一五〇	一六
大新	(二八一七)	五〇〇	一五〇	八

出來高 ▲長期累計 一四一八八 ▲短期累計 一五〇七一〇〇

大阪短期株式

	前寄	大引	後寄	大引
鐘紡	(一五三一)	(一五二九)	(一五三〇)	一五二二
大新	(一〇三〇)	(一〇二七)	一〇二三〇	一〇一三〇
久原	六六〇	六六〇	六六〇	六六〇
新東	一五二五〇	一五二五〇	一五二七〇	一五二五〇

大阪短期步調

▲前場大新 一〇三〇一—一〇一七一—一〇〇〇一—一〇一〇
▲前場鐘新 一五二一七一—一五一〇一—一五〇一
▲前場久原 六六〇—一六〇—一五〇—一六〇
▲前場新東 一五二六〇—一五二〇〇—一〇〇
▲後場大新 一〇二〇一—一〇三〇—一〇一〇—一〇
▲後場鐘新 一五三一一—一五〇一—一〇〇
▲後場久原 六六〇一—一〇〇一
▲後場新東 一五二六一—一五〇〇

大阪長期株式

株名	前寄	大引	後寄	大引
鐘紡	(一五三二)	(一五三〇)	(一五三〇)	(一五三〇)
同新	(一五一〇)	(一五一〇)	(一五一〇)	(一五一〇)
大株	(二三〇)	(二三〇)	(二三〇)	(二三〇)
同新	(一〇三一)	(一〇一〇)	(一〇一〇)	(一〇一〇)
日糖	(一〇三一)	(一〇一〇)	(一〇一〇)	(一〇一〇)
同新	六五二〇	—	—	—
久原	六六二〇	—	—	六六二〇
郵船	—	—	—	—
同新	—	—	—	—

東京現株

株名		株名	
東株	一九一、五〇	同新	一七六、五〇
鮮銀	七〇、七〇	同新	七〇、九〇
殖銀	五〇、五〇	同新	四〇、五〇
滿鐵	一三八、二〇	同新	三八、五〇
東拓	二〇、二〇	同新	一九、八〇
滿毛	—	朝紡	—
富士紡	一二一、六〇	日石	一〇一、〇〇
甲武	—	鐘取	一三六、五〇

京城現株市勢 (二十七日現在)

株名	拂込	配當	市勢
鮮銀	一〇〇〇〇	五	一七〇〇
同新	二五〇〇	五	一八五〇
殖銀	五〇〇〇	九	二〇〇〇
同新	一二五〇	九	一五〇〇
商銀	五〇〇〇	七	二五〇〇
同一新	三七五〇	七	二二五〇
同二新	一二五〇	七	一三〇〇
漢銀	五〇〇〇	五	一五〇〇
同新	一二五〇	五	四五〇
韓一	五〇〇〇	七	三八〇〇
海東	一二五〇	五	八〇〇
東拓	五〇〇〇	八	四〇〇〇
同新	三七五〇	八	一九〇〇
朝土	二五〇〇	一〇	二八〇〇
京電	五〇〇〇	一二	六八〇〇
同新	一二五〇	一二	二二五〇
朝郵	五〇〇〇	八	四〇〇〇
鮮鐵	五〇〇〇	八	四三五〇
同一新	二一〇〇	八	一五〇〇
二新	一七〇〇	八	一〇八〇
三新	一二五〇	八	九三〇
四新	一〇〇〇	八	六三〇
京南鐵	二五〇〇	八	一五二〇
金剛鐵	四〇〇〇	一二	六〇〇〇
殷信	一二五〇	五	四五〇
朝信	一二五〇	五	四五〇
勸信	一二五〇	〇	六〇〇
朝皮革	五〇〇〇	〇	四〇〇
朝火災	一二五〇	五	九〇〇
朝書籍	一二五〇	一〇	一〇〇〇

朝鮮銀行券

發行高	七一、五五二	四八、〇〇	
正貨準備高	三一、八二九	四五、三〇	

日本銀行券

發行高	一、二六六、六〇〇	增 四、九三
準備高	一、〇五八、三二五	八、四三五、四
發行餘力	三六八、三二七	三、四〇八
貸出高	—	—

日本金利

	東京	大阪
無條件	一、四九〇	二、〇〇
翌日拂	一、四五〇	一、八〇
普通物	一、八〇〇	二、〇〇
月	一、八〇〇	二、〇〇

海外經濟

倫敦銀塊 二八片八分七
英米爲替 四弗八分五
印棉 三十錢高

對外爲替 (鮮銀建値)

米 (對米爲替)	一四八弗四分一
스위트株	四九弗八分三
아나콘다株	六二仙四分三
紐育銀塊	四七弗八分七
倫敦	一志十一片八分五
紐育	四七弗四分三
上海	六八兩八分五

大阪三品

月限	前付	前止	後付	後止
八限	二三〇〇	二二〇七	二三〇〇	二三〇〇
九限	二二一〇	二二一七	二二九〇	二二三〇
十限	二二六一	二二三八	二二九〇	二二三〇
十一限	二三三七	二三二〇	二三一五	二三一〇
十二限	二四四〇	二四八〇	二四一八	二四一〇
一限	二四五七	二四五八	二四二九	二四一〇
二限	二四五〇	二四二九	二四二〇	二四〇〇

橫濱生糸

	前場	後場
當限	一九九七	—
先限	一六八〇	一七〇五

延取引

群山 賣買高一萬四千九百石

○セ三等	三三、五〇	三四、七〇
□チ三等	三四、三〇	三三、四〇
	八月末	九月中	九月末	十月中
一回	三三、八〇	—	—	三三、六〇
二回	三三、六〇	—	—	三三、六五
三回	三三、五〇	—	—	三三、五五
四回	—	—	—	三三、六五
五回	—	—	—	三三、七〇
六回	—	—	—	三三、七六

釜山 賣買高二千三百石

穀良 三六、二〇 神力 三五、四〇

	八月末	九月中	九月末	十月中
一回	—	—	—	三四、三〇
二回	—	—	—	三四、二五
三回	—	—	—	三四、二一
四回	—	—	—	三四、二五
五回	—	—	—	三四、二二
六回	—	—	—	三四、二〇
七回	—	—	—	三四、一〇
八回	—	—	—	三四、一八

大邱 賣買高一萬九千二百石

穀良 三五、九〇 神力 三五、一〇

	八月末	九月中	九月末	十月中
一回	—	—	—	三五、二八
二回	—	—	三五、二六	三五、二四
三回	—	—	三五、三〇	三五、二〇
四回	—	—	—	三五、二六

京城穀物市勢

白米	四一、三〇	
毛(?)	四一、〇〇	
合	—	
大豆	二二、二〇	
五回	—	三五、五〇
大回	—	三五、五〇

京城綿糸布 (與一社調查)

◎綿布(質木) 三A 二四六、〇〇 三A B 一八四、〇〇 3B 一六〇、〇〇 鵝 一四七、〇〇 角寶 B 一三二、〇〇 三角 印一二九、〇〇 角 一二六、〇〇 貴寶 一二三、〇〇 長 一二一、〇〇 蓮 一一八、〇〇 二葉 鐘 一五、〇〇 軍 一一一、〇〇 兵 一〇九、〇〇 龍 鵝 一〇六、〇〇 二葉 鐘 一〇五、〇〇 三葉 一〇二、〇〇 犬 一〇一、〇〇 花 一〇〇、〇〇

◎細布(洋木) 飛 一三、一〇 犬 一〇、八〇 馬美人 一三、二〇 世樂島 一二、二〇 隱滿樂 一〇、三〇

◎綿糸(四〇) 鹽面 一六六、〇〇 鐘鳳 一六三、〇〇 鐘女 一六三、〇〇 愛天 一六一、〇〇

◎晒金巾(玉洋木) 進軍圖 二三、八〇 金 二三、二〇

◎晒木棉(광목) 竹 一一、三〇 印 一一、〇〇

◎三井天津棉 每百斤 一六六、五〇

◎東洋木 白色 二、五〇 洋 二、〇〇 黑色 二、五〇 灰 二、五〇

商品市況

砂糖

商動이 不振하야 不味商情을 迎하고 目先弱含인데 大阪精糖은 二十三圓六十錢으로 臨地市況은 二十三圓三十錢

外米

外電保合當地商情은 賣買關係로 閑散인바 미돈 二十六圓六十錢 關貢 二十六圓三十錢 西貢 二十六圓의 各保合이오 目先軟弱

第一有效한 벳헤걸지안케하는 クラブクリーム 구라부美身크림

此구라부美身『크림』은 素顔의 美를 增하고 白粉의 附着을 良好케한 品質이라 거칠지안케하고 벗헤걸지안케하오며 惶悚히

皇后宮職御用品

되의 光榮을 蒙하엿슴니다……

優良한 技師가 만든 優良한 品

구라부洗粉 本店謹製의

化粧의 順序 가티이石鹼 구라부洗粉 구라부크림 구라부白粉 구라부頰紅 구라부練白粉 美人